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2022年度 秋季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日 時：2022年 10月 22日(土)
- 場 所：濟州漢拏大學校 錦湖世界教育館 A洞
- 主 催：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 後 援：同志社大學/J&C

JLC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Japanese Language &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目　次

〈基調講演〉

• 日本學界 學會運營體系 改善 方向 ……牟世鍾(仁荷大)…11

〈言語〉

• 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と呼応する副詞の文法化 ……朴江訓(仁荷大)…17
　－「言語接触」の観点から－
• 「わけだ」の翻訳の在り方について ……宋洙珍(仁荷大)…22
　－「のだ」との関係から－
• 明治･大正期資料の文体差による評価副詞類の使用実態 ……林禔映(全南大)…27
• 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について ……崔鉉弼(韓国外大)…33
　－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調査から－
• 韓国語母語話者における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 ……大久保雅子(早稲田大)…38
　－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聴取練習から－
• 手記研究の可能性と課題 ……樋口謙一郎(椙山女学園大)…43
　－望月カズを事例として－

〈文化〉

• いわゆる人情読本について ……崔泰和(群山大)…49
　－『玉兎』を中心に－
• 日本近世文学の韓国語訳の現状と問題 ……片龍雨(全州大)…53
• 明治時代の文学における結核表象 ……金孝順(高麗大学グローバル日本研究院)…57
　－森鴎外の「仮面」を中心に－
• 江戸川乱歩の初期考察 ……申鉉泰(祥明大)…67
　－初期4作品の特徴－
• 東アジア文学における〈老い〉表象 ……李佳呟(高麗大)…75
　－三島由紀夫の『朱雀家の滅亡』を中心に－
• 村上春樹文学に投影された戦争記憶 ……趙柱喜(長安大)…80

韓 國 日 本 言 語 文 化 學 會

2022年度 秋季國際學術大會

◉ 日　時：2022年 10月 22日(土) 9:30～20:00 --- 學術大會

10月 23日(日) 9:00～12:00 --- 運營委員會・任員會議

◉ 場　所：濟州漢拏大學校(錦湖世界教育館 A洞)

▶ 日程 ◀

＊ 09:20～09:40 登録 …… 國際經營學科講義室 609號

＊ 09:40～10:00 開会式 …… 國際經營學科講義室 609號

開会辞：金賢廷(会長･白石大)　司会：片龍雨(総務理事･全州大)

歡迎辭：林昌奎(濟州漢拏大･産學協力團長)

＊ 10:00～10:40 基調講演：牟世鍾(編輯委員長･仁荷大) …… 國際經營學科講義室 609號

「日本學界 學會運營體系 改善 方向」　司会：權赫仁(副會長･光雲大)

＊ 10:40～11:40 第1部 学術発表会 …… CapstonDesign專用實習室 603號

＊ 11:40～13:00 昼食 ……

＊ 13:00～15:00 第2部 学術発表会 …… CapstonDesign專用實習室 612號

＊ 15:00～18:00 文学散歩 …… 漢拿樹木園

＊ 18:00～20:00 Reception …… 司会：片龍雨(総務理事･全州大)

＜言語＞ 第１部 発表　言語・教育

座長 ： 方允炯(水原大)

時間	発表者	発表題目	司会者	page
10:40 ～11:10	朴江訓 （仁荷大）	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と呼応する副詞の文法化 ―「言語接触」の観点から―	金殷模 （全北大）	17
11:10 ～11:40	宋洙珍 （仁荷大）	「わけだ」の翻訳の在り方について ―「のだ」との関係から―	張蕙先 （鮮文大）	22

＜言語＞ 第２部 発表

座長 ： 井口有子(仁荷大)

時間	発表者	発表題目	司会者	page
13:00 ～13:30	林禔映 （全南大）	明治・大正期資料の文体差による評価副詞類の 使用実態	朴英淑 （水原科學大）	27
13:30 ～14:00	崔鉉弼 （韓国外大）	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について ―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調査から―	孫榮奭 （濟州大）	33
14:00 ～14:30	大久保雅子 （早稲田大）	韓国語母語話者における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 ―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聴取練習から―	金義泳 （ハンバッ大）	38
14:30 ～15:00	樋口謙一郎 （椙山女学園大）	手記研究の可能性と課題 ―望月カズを事例として―	井口有子 （仁荷大）	43

<文化> 第1部 発表 文化・文学

座長: 權赫仁(光雲大)

時間	発表者	発表題目	司会者	page
10:40 ~11:10	崔泰和 (群山大)	いわゆる人情読本について	李忠澔 (釜山外大)	49
11:10 ~11:40	片龍雨 (全州大)	日本近世文学の韓国語訳の現状と問題	朴熙永 (ハンパッ大)	53

<文化> 第2部 発表

座長: 金孝順(高麗大)

時間	発表者	発表題目	司会者	page
13:00 ~13:30	金孝順 (高麗大学 グローバル 日本研究院)	明治時代の文学における結核表象 ―森鴎外の「仮面」を中心に―	片龍雨 (全州大)	57
13:30 ~14:00	申鉉泰 (祥明大)	江戸川乱歩の初期考察 ―初期4作品の特徴―	金靜希 (嘉泉大)	67
14:00 ~14:30	李佳呟 (高麗大)	東アジア文学における<老い>表象 ―三島由紀夫を中心に―	崔泰和 (群山大)	75
14:30 ~15:00	趙柱喜 (長安大)	村上春樹文学に投影された戦争の記憶	李忠澔 (釜山外大)	80

基調講演

日本学界 学会運営体系 改善 方向

牟世鍾(仁荷大)

1. 학계의 운영 실태

학회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구자들의 삶이 왜곡될 수 있다. 증가하기만 하고 활발하기만 하던 학회가 어느새 기능부전에 빠지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로 변하고 있다. 현재 일본학계 대부분의 학회가 대동소이한 모습이다.

학회는 자연스럽게 태동하여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인데, 관이 개입하면서부터 부자연스러운 옷을 껴입으며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졌다.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가는 자연스러운 방법에서 일탈하여, 단순히 의사의 지시나 관리에 따른 처방전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모하여 학회가 건강을 잃고 있다.

산업사회의 환경도 급변하면서 인문학 분야의 위기 상황이 초래된 이래 연구의 입지도 약화된 지 오래이다. 일본학계도 예외가 아닌데, 설상가상으로 본 학계는 한일관계의 악화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의 지속으로 연구의 산실인 대학이 위기 상황 속에서 활기를 잃으며 연구자 수의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연구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연구자의 길을 걷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문을 이어야 할 후학들이 급감하고 있다.

학계가 번창하던 때에 연구재단의 부당한 개입과 함께 도입된 연구업적 제일주이 탓에 논문양산을 강요받아 급기야는 많은 연구자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며 각지에서 학회설립에 나섰는데, 그래도 많은 연구자가 있었기에 출발은 가능했었다.

세상의 변화만큼 학계의 환경도 급변했는데, 우후죽순처럼 생긴 학회는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연구자 수는 급감했는데, 그 많은 학회가 예전과 같은 규모의 학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초라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많은 학회 활동을 감당해야 하니, 한두 학회에서 적절히 수행하면 되던 학회 활동이 다수의 학회에서 겹치기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동분서주의 겹치기 출연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이미 소수만이 모여 가까스로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해가는 모습이다.

다량의 논문발표로 논문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 논문을 읽는 자가 본인과 심사자밖에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회자 된 지 오래인데, 학술대회도 마찬가지로 발표장에 발표자와 운영요원인 사회자, 토론자만이 딸랑 앉아있는 경우를 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내 포스트만이 근사한 학술대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양산되던 학회지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이다. 사실 학술대회는 중지해도 학회지 발행을 중지할 수는 없는 일로, 학회지 발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학회의 존재의의는 사라지고 만다. 이미 각 학회의 투고논문 감소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학술지 발행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은 연구자들로

난립한 학회에서 예전과 같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탓에 학술지 발행 횟수뿐 아니라 학술지의 양도 유지해야 하는 족쇄에 걸려 있어, 대부분의 학회가 막다른 골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수많은 학회에서 수많은 학술지를 발행해야 하니 적은 수의 연구자들이 일단은 돌려막기처럼 이곳저곳에 논문을 내는 형편이지만, 점점 더 줄고 있는 연구자들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져, 각 학회의 학술지 발행 업무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각 학회의 운영진들은 학술지 인증제도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 속에서, 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학회지 발간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연구자들은 연구재단의 등재지이면 어느 곳에 논문을 게재해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 지금과 같이 많은 학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개인의 논문생산에도 한계가 있어, 많은 학회로부터 과도하게 요구받는 논문투고에 응하기 어렵다. 다행스러운 일인지, 발행되는 학회지가 많은 만큼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는 전과 달리 용이해졌다. 경쟁력 있는 논문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이다.

학회를 통하지 않고 논문을 발표할 수는 없어 학술지 발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지만,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칫 학회지 발행에 바람직하지 않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계의 변화 없이는 학회 활동이 왜곡되어, 그렇지 않아도 논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사회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부조리가 만연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오랜 학회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회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학회 운영 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현 학회운영체재의 진단

현재의 학회는 연구자가 많아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의 사고 속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연구자 규모가 축소되어 학회 운영이 어려워졌음을 알면서도 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학회가 전과 동일한 활동을 계획하며 수행하고 있다. 그래도 잘 버텨가며 그럭저럭 학회 운영을 추슬러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일단 만남이 없는 비대면 활동이 전개되면서 회원뿐 아니라 임원 간에도 긴밀한 상호작용이 결여된 탓인지, 전반적으로 학회 활동이 느슨해지며 학술대회는 물론 투고논문 모집에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학회는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새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도 연구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연구자 수가 급감하고 겹치기 출연을 강요받고 있는 임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다.

학술대회는 그 개최 수를 줄이거나 발표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학술지 발행은 질에 관계 없이 논문투고를 독려해도 모집에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게재논문이 풍성했던 학회지는 게재 편수가 줄어 점점 얇아지고 있다. 오히려 게재 편수가 줄어 학회지다운 면모를 찾고 있다고 기뻐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재단의 평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투고논문이 모이지 않고서는 학회를 유지해나갈 수 없어, 변화의 노력 없이는 학회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3. 학회 개선 방향 및 방법

학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공멸하기 전에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회 정상화를 위해 학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학회 정상화에는 현 학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법과 학계 개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연구자를 적절한 규모로 재편성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내부의 개혁과 학계 전체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로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여 학회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당장 학회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우니, 운영되고 있는 학회를 재정비 하는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의 연구자로 다수의 학회가 예전과 같은 규모의 활동을 감당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 학회의 활동을 적절한 규모로 재정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회가 연 2회의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 4회의 다량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연구자 수가 많아서 많은 학회가 별문제 없이 학회 운영을 고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학회 유지만을 위해 크게 무리하며 기존 체재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연구재단의 평가와 지원이라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운영되던 학회가 인위적 처치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학술대회에 발표자는 물론 참가자가 모이지 않고 학술지 발행에 투고논문이 모집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학계는 지역학 연구의 특성상 서로 관계하지 않는 연구 분야가 한 학회에 모여 있는 체제이다. 학술대회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일본언어문화학회'를 예로 들면 학술대회를 '언어'와 '문화'로 나눠 춘계와 추계를 분야별 대회로 개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소수의 제대로 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학술대회는 훌륭하고도 풍성한 발표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수행할 발표자 모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역량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사전에 발표를 의뢰하는 초청발표를 상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발표를 하지 않아도 논문투고가 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중견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지 않아 학술대회의 무게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우수한 발표를 통해 후학들에게 좋은 연구 방법을 공개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작지만 알찬 학술대회가 정착되면 일반 발표자는 발표 요지문을 제출하여 발표 가능 여부를 평가받게 하여 발표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발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의 국제화를 통해 대회를 국제대회로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처럼 한번은 국내대회로 하고, 나머지 한번은 '한중일공동개최국제학술대회'로 하는 것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삼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면 한 국가의 적은 발표자로도 삼국이 합쳐지게 되니 대회 규모도 갖출 수 있고, 형식이 아닌 실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연구자의 교류 증진뿐 아니라 학술대회의 수준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급감하는 연구자와 악화하는 연구환경을 받아들여 현 학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학회의 지역별 통합이나 분야별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이 당일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학회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난립한 학회의 재구성에는 지역별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수나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일본학계는 '수도·강원권' 두세 개,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각 한 개 등 전국을 최대 5개 정도의 학회로 재설립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본학계를 전공의 성격에 따라 즉 '언어'와 '문학'을 기본으로 하여 학회를 재설립하는 것이다. 큰 영역으로 '일본언어학회'와 '일본문학회'를 두고 세부 영역별로 분류하여 '일본통번역학회', '일본어교육학회', '일본문화학회' 등을 두는 것이다. 더 세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여 학회 재설립의 의미는 상실하고 만다. 전공영역을 좀 더 세분하여 활동해야 한다면 학회가 아닌 연구회 정도의 성격으로 설립하면 될 것이다.

학문영역별 재구성은 새로운 학회를 발족시키고 기존 학회를 해산하는 형태로 진행해야할 사안으로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학회를 통합하는 지역별 통합이 훨씬 수월하다. 먼저 연구자의 분포를 파악하여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의 학회부터 서로 통합해야 한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먼저 연합의 형태를 취하여 학술대회와 학회지발간을 일부 공동작업으로 시작한다.

학회의 개혁에는 연구자들의 자각과 실천이 중요하다. 모든 연구자는 한두 개의 학회 가입에 머물러야 하고, 한 연구자가 복수의 학회에서 임원을 맡는 것도 엄격히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임원이나 회원은 소속된 학회에서 사활을 걸고 모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많은 학회에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는 당장 이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각 학회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연구자의 부족을 실감하여 학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권역별이나 전공별로 새로운 형태의 학회를 재설립하여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에서만 활동하게 될 때, 학회는 해산과 재설립 등의 변화가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본 학계에 어울리는 적정규모의 학회가 탄생하여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학회조정에는 한 개인의 회원가입을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회칙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본인 지역과 타 지역 한 학회에만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언어 전공자는 언어학회와 하위 세부 전공 분야 학회의 2곳에만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마치며

학회가 정상화되어야 연구자들이 연구환경도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연구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고생하여 만든 각 학회이지만 이미 모든 학회를 예전처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본 학계의 각 학회는 발버둥 치다 나락에 빠질지도 모른다. 학술 활동이 희화화하여 그저 연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연구력이 요구받는 상황에서 부조리한 학회 운영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점점 더 떨어트리고 논문 아닌 논문을 양산시키는 비양심적 학문의 세계를 연출할 뿐이다.

각 학회가 현실을 직시하여 학회통합에의 길에 나서야 한다. 당장은 현 학회의 활동 규모를 축소시켜 작지만 의미 있는 학회 운영을 꾀해야 한다. 각 연구자들도 소속 학회를 한두 개로 정리하여 일본학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言語

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と呼応する副詞の文法化

－「言語接触」の観点から－

朴江訓(仁荷大)

1. 問題提起

本発表の目的は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副詞の文法化を言語接触の観点から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研究対象は韓日両言語における「결코/결단코」と「決して」である。これらの表現は下記のような統語環境において否定述語と呼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a. 이번에는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용납될 것입니다).
b. 이번에는 실수는 결단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용납될 것입니다).
c. 今回は間違いは決して許されないでしょう(*許されるでしょう)。

(1)のような統語的特徴から従来、これらの表現は否定副詞、または否定極性表現(Negative Polarity Item: 以下、NPIと呼ぶ)として捉えられてきた。よって、朝鮮語大事典(1986)など、多くの辞典類では「결코/결단코」と「決して」が類似した表現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れらの表現は以下のような統語環境においては異なった振る舞いを示す。

(2) a.*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이 일을 해내고 말겠다.
b.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결단코 이 일을 해내고 말겠다.
c.*みんなが不可能だと言ったが、私は決してこの仕事を成し遂げよう。

[問題になる現象Ⅰ]

なぜ「결단코」は「결코」及び「決して」と異なり、(2b)のような統語環境、つまり、肯定文においても生起可能であるのか。「결단코」は「결코」及び「決して」と本当に同一表現であるのか。

[問題になる現象Ⅱ]

20世紀中期までは韓国語の「결단코」が「결코」よりNPIとして高い位置を占めていた。これに対し、20世紀中期以降は、「결코」が「결단코」よりNPIとして高い位置を占めている。このことは以下のデータから裏付けられる。すなわち、現代語に置いて「결단코」は「결코」及び「決して」と異なり、いわゆる脱文法化(degrammaticalization)が行われているようである。なぜこのような現象が見られるのか。

（表1）a.　NPIとして用いられた「결단코」と「결코」の使用頻度

	결단코	결코
(i) 신학월보3권(249,715字　1903年)	5	1
(ii) 재봉춘(77,955字 1912年)	3	1
(iii) 연경좌담(106,359 1923年)	8	3

b.　NPIとして用いられた「결단코」と「결코」の使用頻度

	결단코	결코
(i) 토지(254,057字　1995年)	0	15
(ii) 고등어 (143,455字　2006年)	0	11
(iii) 황금비늘(194,080字 2014年)	2	32

本発表は前述した二つの問題になる現象を文法化理論に基づき説明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管見の限りにおいて、先行研究ではこのような研究は行われたことがない。

2. 本発表の主張

本発表の主張をまとめると下記の通りである。

(3) a.「결단코」のNPIへの文法化プロセスは以下の通りである。

「결단코」のNPIへの文法化プロセス

	Stage 1	Stage 2	Stage 3
i. 時期	15C～	18C～20C中期	20C中期～現在
ii. 範疇的変遷	動詞	副詞・NPI	副詞・準NPI
iii. 意味的変遷	具体的領域	抽象的領域	抽象的領域
iv. 否定極性への変遷	肯定述語	肯定・否定述語と呼応	肯定・否定述語と呼応
v. 形態的変遷	決断ᄒᆞ다	決断코, 결단코	결단코

(cf. 1)「결코」のNPIへの文法化プロセス(朴(2022))

	Stage 1	Stage 2	Stage 3
i. 時期	15C～	19C後期～20C前期	19C後期～現在
ii. 範疇的変遷	動詞	副詞	副詞・NPI
iii. 意味的変遷	具体的領域	抽象的領域	抽象的領域
iv. 否定極性への変遷	肯定述語	肯定・否定述語と呼応	否定述語とのみ呼応
v. 形態的変遷	決ᄒᆞ다	결코	決코・결코

(cf. 2)「決して」のNPIへの文法化プロセス(朴(2022))

	Stage 1	Stage 2	Stage 3
i. 時期	～18C	18C前期～19C前期	18C後期～現在
ii. 範疇的変遷	動詞	副詞	副詞・NPI
iii. 意味的変遷	具体的領域	抽象的領域	抽象的領域
iv. 否定極性への変遷	肯定述語	肯定・否定述語と呼応	否定述語とのみ呼応
v. 形態的変遷	決す	決して	決して

b. 20世紀中期までは韓国語の「결단코」が「결코」よりNPIとしての文法化が進んでいたが、20世紀中期以降は、何らかの理由で「결코」に負け脱文法化が進んでいる。つまり、「결단코」は「決して」及び「결코」と異なりNPIとしてのStage 3に進んでおらず、またNPIとしての文法素性も失っている。

c. 前述したbは言語接触理論から説明できる。「결단코」と「결코」は異音同義語として競争関係にあったが、20世紀前期、「決して」との言語接触により、「결코」がNPIとして優位を占めるのである。他方、競争関係において負けてしまった「결단코」は脱文法化が起こり、「결코」が持っていない副詞(→肯定述語との呼応)としての文法化が進んでいる。

3. 考察

3.1 「결단코」のNPIへの文法化プロセス

3.1.1 Stage 1(15世紀～): 動詞としての「決断ᄒᆞ다」

(4) a. 正法으로 모ᄃᆞᆫ 疑心ᄋᆞᆯ 決断ᄒᆞ샤. (釈譜2:54, 1459年)

b. 님ᄀᆞᆺ 恩恵로 決断호미 神霊ᄀᆞᆮᄒᆞ면 (初杜解, 1481年)

c. 잇거든 죵용히 고티며 경계ᄒᆞᄂᆞ니ᄂᆞᆫ 버듸 소심이니 내 ᄠᅳ데 결단ᄒᆞ야 가ᄆᆞᆫ모로매 내 히믈 뻐 ᄒᆞᆯ 거시라 ᄂᆞᄆᆡ게. (번역소학8:36a, 1518年)

d. 文王 셤기실 제 힝실을 쳔ᄌᆞᄒᆞ야 결단홈이 업ᄉᆞ시며. (소학언해 4:14, 1588年)

3.1.2 Stage 2-①(18世紀～): 副詞(→肯定述語との呼応)としての「決断코/결단코」

(5) a. 결단코 ᄃᆡ인과 ᄇᆡᆨ형이 관인 후덕을 힘쓰시니 황녀등을 져주어 간졍을. (윤하정 삼문취록권59:26a, 17xx年)

b. ᄉᆞ촌 오라비니 가마니 밤의 가 문 나기를 쳥ᄒᆞ면 결단코 드를 거시오 ᄯᅩ 젼일의 ᄉᆞ촌이 셩문 열쇠 일코. (금향정기(경판68장본)1:34a, 1851年)

c. 심즁으로만 걱졍ᄒᆞ얏더니 인졔ᄂᆞᆫ 너의 부친의 마암을 본밧으리로다 ᄆᆡ션아 결단코 이삼 년을 기다리면 심랑의 거취를 알 것이니 안심ᄒᆞ야. (설중매05, 1908年)

d.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결단코 자신이 마음 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 (시련은 있어도., 1991年)

3.1.3 Stage 2-②(18世紀～): NPIとしての「결단코」

(6) a. 그 복덕 완비지상이 결단코 화흔 요물치 아니 ᄒᆞ올 거시니 타일 당당이 무사. (윤하정삼문취록권56:37b, 17xx年)

b. 갑시 ᄇᆞᆫ 故로 ᄆᆡ우 잘 팔니나 志学이 快断코 이 돈을 虚費치 아니코. (정심소 10b, 1896年)

c. 決断코 "모던-ᄉᆞᆫ이", "모던-ᄯᅥᆯ"은 되지 않이 할 것이다. ('모던-'의 진의의, 1931年)

d. 당신네들은 우리 중국 사람 강도의 짓이라고 얼른 생각하겠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구요. (모략(염상섭) 112, 1948年)

3.1.4 Stage 3(20世紀中期～現在): 副詞(→肯定述語との呼応)準NPIとしての「결단코」

(表1)を参照。他に、「決して」と「결코」の文法化は(3a)の(cf.1,2)を、詳細は朴(2022)を参照。

3.2 言語接触理論からみた「決して」と「결단코」「결코」

◎言語接触とは(사회언어학사전(2012)):

言語接触(Lanague Contact)とは、異なる言語または方言を用いる2つ以上の個人や話者グループが互いの社会的接触を行う状況を指し示す。言語接触の主体は人であるが、人同士の言語接触の結果は接触要因によって異なってくる。接触要因は大きく2つ、つまり言語の内的要因と外的要因に分けられる。

◎ 渋谷(2010)による2つのタイプの言語変化:

(i) 類型Ⅰ：内的変化(Internal Change)

⇨一つの言語の内部で行われる内的変化

(ii) 類型Ⅱ：外的変化(Internal Change)

⇨他の言語との接触による外的変化(例)借用、第二言語習得、コードスイッチ、ピジン・クレオールなど)

3.2.1 競争関係にあった「결단코」と「결코」

20世紀前期、両者は意味的に異音同義語であり、NPIとしての文法素性も同様に持っていた。

(7) a. 다 천당 갓계오 우리가 후에 가 보면 알녀니와 결코 하나도 못 갓겟소 그들이 하나님 섬기난 모양 하나. (신학월보3:339, 1903年)

b. 그런 중 뎡의로 싱각ᄒᆞ면 한업시 가업스나 의리로 싱각ᄒᆞᆫ즉 결코 용셔ᄒᆞᆯ 슈가 업슨즉 ᄌᆞ네ᄂᆞᆫ 여러 말ᄒᆞᆯ 것 업시. (우중행인 79, 1913年)

c. 머지 아니ᄒᆞ니 만일 진도* 도라와셔 계향의 일을 알면 결코 나를 용셔치 아니ᄒᆞ리라 진도 드러오기 젼에 저의 두. (어사박문수 20, 1926年)

(8) 「결단코」の例は(6)を参照。

3.2.2 日本語の「決して」との言語接触による脱文法化

日本占領期であった20世紀前期～中期、「決して」と同様の統語的特徴を持っていた「결단코」と「결코」は出版物などの翻訳作業において頻繁に接触されたと考えられる。前述したように競争関係にあった「결단코」と「결코」であるが、形態的に「決して」と非常に類似した「결코」が「결단코」に勝ち、NPIとしての文法化がさらに進んだと考えられる。他方、競争関係で負けてしまった「결단코」はそれ以降、NPIとしての働きは「결코」に譲り、「결코」が持っていない領域、つまり肯定述語と呼応する単なる副詞として文法化されていくのである。

・ 証拠Ⅰ：「결코」と「決して」の形態的類似点。(3a)の両者の形態的変遷を参照。

・ 証拠Ⅱ：「결코」と「결단코」のNPIへの文法化、つまりStage2の出現時期から伺える。「결단코」は「결코」よりおよそ2世紀早くNPIへの文法化が見られている。文法化理論から考えると「결단코」が「결코」よりNPIとしての文法化が進むはずである。しかし、当時「결코」もNPIとしての文法素性が現れ

Stage 3で見られるように「결코」が結局NPIとして定着する。

- 証拠Ⅲ：「결코」のStage 3の出現時期から伺える。19世紀後期～20世紀中期は日本語との言語接触がもっとも多かった時期である(이한섭(2012))。よって、当時Stage 3へと進むはずであった「결단코」は「결코」によって阻止されたのである。
- 証拠Ⅳ：(表1)の結果が挙げられる。文法化理論において該当表現の使用頻度は文法化の度合いを判断できる重要な基準の一つである。
- 証拠Ⅴ：当時の他のNPI「しか･ほか」と「밖에」の言語接触現象も傍証になると考えられる。Park(2015)によると、「밖에」のStage 1からStage 2への文法化は「しか･ほか」より非常に早いという。このことは19世紀後期～20世紀中期、「밖에」と「しか･ほか」との言語接触に起因すると박강훈(2016)は主張する。詳細はPark(2015)と박강훈(2016)を参照。

以上、本発表の主張(3)が正し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4. おわりに

本発表は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副詞、「결코/결단코」と「決して」の文法化を言語接触の観点から明らかにした。本発表の主張は(3)を参照。

＜引用文献＞

박강훈(2016)「한일 양 언어의 언어접촉에 의한 언어변화」『일본문화연구』58:43-61

이한섭(2012)「19세기말 한일어의 접촉과 교류 연구-근대한국어코퍼스를 사용하여-」『일본어학연구』34:11-24.

渋谷勝己(1998)「文法変化と方言－近畿方言の可能表現をめぐって－」『言語』27(7) pp.18-25

渋谷勝己(2010)「言語接触研究の動向」『日本語学』29(14), pp.6-15

朴江訓(2022)「韓日両言語における否定副詞の文法化をめぐって-「결코」と「決して」を中心に-」『日語日文学研究』120:69-88.

Park, KangHun(2014) A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Negative polarity Items. *Language Sciences* 45, England: Elsevier Limited, pp.152-172.

Park, KangHun(2015) A Discrepancy in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and Japanese Negative Sensitive Items.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22. Stanford: CSLI Publications.

＜コーパス＞

韓国語: 「21세기 세종 계획」,「깜짝새(SynKDP)」/ 日本語: 「太陽コーパス」

『わけだ』の翻訳の在り方について

－「のだ」との関係から－

宋洙珍(仁荷大)

1. はじめに

説明モダリティを表すとされる「わけだ」と「のだ」を使い分けるのは、話し手が表そうとする意図が異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異なった場面に使われる「わけだ」と「のだ」が韓国語に訳されると、両形式が同じ意味になり、両形式の違いが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

(1) a. 今日大学を卒業した。明日から学生ではないわけだ。
　　b. 오늘 대학을 졸업했다. 내일부터 학생이 아닌 것이다.
(2) a. 今日大学を卒業した。明日から学生ではないのだ。
　　b. 오늘 대학을 졸업했다. 내일부터 학생이 아닌 것이다.

(1)(2)のように「わけだ」と「のだ」は共に韓国語の「것이다」に訳される場合が多い。だが、韓国語の「것이다」には「わけだ」と「のだ」の表す意味が含まれているが、両形式が表すモダリティ的な意味まで反映さ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であろう。韓国語の「것이다」は「わけだ」と「のだ」が表そうとする意味関係を表すことができるが、「わけだ」と「のだ」では異なったモダリティ的な意味があり、それが韓国語訳に反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つまり、(1)b.(2)b.の「것이다」は、話し手の表現意図が反映されていない、前後文脈の関係のみを表している韓国語訳になるのである。

本稿では、「わけだ」と「のだ」の類似した意味の違いから、韓国訳の問題点を明らかにした上で、「わけだ」と「のだ」が表す話し手の心的態度が反映されるより適切な韓国語訳を提示していきたい。

2.「わけだ」と「のだ」の韓国語訳の実体

モダリティ形式に関する日韓の研究には「のだ」と「것이다」を中心とする研究は多いが、「わけだ」とその韓国語訳についてはあまり触れられていない。「わけだ」と「のだ」を取り上げた韓国の学習書[1)]に取り上げられている「わけだ」と「のだ」は次の通りである。

(3)～(24) 省略

「のだ」の韓国語訳も「것이다」か「ø」になっており、「わけだ」とほぼ同じ意味になっている。教育の現場でも「わけだ」と「のだ」について、両形式がどんな意味なのかを提示するに止まっており、例えば「わけだ」が表す帰結と「のだ」が表す帰結の違いを記述せず、その韓国語訳も正しく位置づけられていない。「わけだ」が表す因果関係と「のだ」が表す因果関係の違いを同じ意味の同じカテゴリ(説明のモダリティ)の中で説明すると、韓国人日本語学習者には両形式の使い分けができなくなる。「わけだ」と「のだ」は話し手の場面に対する捉え方が異なっており、場面をどう捉えるかによって「わけだ」か「のだ」が選ばれるのであろう。「わけだ」に対する正しい韓国語訳ではないと「わけだ」の正しい使い方が学習できない。「わけだ」と「のだ」の意味を韓国語で正しく訳し、その韓国語訳から日本語に戻した場合、必ず「わけだ」と「のだ」に戻せるような教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だ」と「のだ」の意味の違いを韓国語で正確に訳すのは簡単ではない。しかし、両形式の意味を正確に理解すれば、話し手の表現意図を反映した適切な韓国語訳が不可能でもないと思われる。

「わけだ」は帰結、捉え直し、納得などを表すとされるが、まず、これらの意味の違いが韓国語訳に反映されているのかを見ることにする。次の(25)～(28)は、日韓の対訳資料に見られる「わけだ」の韓国語訳である。

(25) a. 「お前はその程度の人間なのだ」という現実を嫌というほど見せつけられ、人生に待ち受けていたはずのあらゆる可能性が〝不可能性〟へと反転する。幸福なロマ}ンティシズムの季節は終わり、残酷なリアリズムの時代がやってくるわけです。 (嫌)

b. [省略] 잔혹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미)

(26) a. 担任の先生だけが大丈夫だったのは、濃度が薄くて、大人の身体はたまたまそれに対抗できたからだというわけです。 (海)

b. 담임선생만 무사했던 이유는 독가스의 농도가 약해서 어른의 신체는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

(27) a. 「まあそうだよね、うまくいっていれば家出なんてすることもないわけだしさ」とさくらは言う。 (海)

b. “하긴 그렇겠지. 잘 지내고 있었으면 가출 따위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말이지”하고 사쿠라는 말한다. (해)

(28) a. それで実際に自分の目で確かめて、少しでもおかしな点があればその誤りを正してさしあげよう、というわけです。 (嫌)

b.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드리려고요. (미)

「わけだ」は(25)～(27)のように「것이다、셈이다、말이다」などに訳されるが、(28)のように訳されない場合もある。しかし、(25)～(28)のいずれにおいても、「わけだ」の表す話し手の心的態度が韓国語にうまく反映されている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わけだ」を使った話し手の意図がより正確に伝えられるような訳し方が工夫されるべきである。

---

1)『実用日本語文法』(2011), 筆者が番号や傍線など形式の修正を加えた。

3. 「わけだ」と「のだ」の韓国語訳の仕方

「わけだ」と「のだ」のより適切な韓国語訳を提示するためには、「わけだ」と「のだ」の意味に対応する韓国語訳を考え直す必要がある。以下、日本語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文型辞典2)の韓国訳を取り上げ、主に「帰結」「納得」「捉え直し」の意味を表す「わけだ」と置き換えの関係にある「のだ」を中心にし、「わけだ」と「のだ」の韓国語訳について捉えていきたい。

(29) イギリスとは時差が8時間あるから、日本が11時ならイギリスは3時なわけだ。
영국과는 시차가 8시간 나니까 일본이 11시라면 영국은 3시라는 말이다.
(30) 彼女は中国で3年間働いていたので、中国の事情にかなり詳しいわけである。
그녀는 중국에서 3년간 일했기 때문에 중국 사정에 꽤 정통한 것이다.
(31) コンセントが抜けている。だからスイッチを入れてもつかなかったのだ。
콘센트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도 안 켜졌던 것이다.
(32) 産業廃棄物の不法投棄が後を立たない。そのために我々の生活が脅かされているのだ。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9)～(32)は前の文で述べた事柄の帰結として導き出されるものであるという意味を表す「わけだ」と「のだ」である。「것이다/말이다」に訳されているが、いずれも「것이다」に訳して差し支えなく、(29)のように「말이다」に訳したり、[41][42]のように訳さなかったりすると、文の命題的な意味は伝えられても、話し手の心的態度までは伝えられなくなる。

ただし、「わけだ」を「것이다」に訳すとしても、現場を捉える表現だいうことを考え、話し手の心的態度を表わす抑揚などの言い方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前後文脈の情報を提示する「のだ」を訳した「것이다」と異なり、「わけだ」を訳した「것이다」は単純な事実関係を述べるものではなく、話し手の気づきなどの現場を捉える感覚を表わす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が重要である。書き言葉の「것이다」と違って、話し言葉の「것이다」が表わす意味には抑揚などによって、話し手の心的態度を反映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る。

(33) 彼女はフランスの有名なレストランで5年間料理の修行をしたそうだ。つまりプロの料理人であるわけだ。
그녀는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5년간 요리를 배웠다고 한다. 즉 프로급 요리사이다.
(34) 父は20年前に運転免許を取っていたが車は持っていなかった。つまり長い間ペーパードライバーだったわけだ。
아버지는 20년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차는 없었다. 결국 오랫동안 장롱면허였던 셈이다.

---

2)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35) 防災設備さえ完備していればこのよう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つまりこの災害は天災ではなく人災だったのだ。
방재설비만 완비되어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됐다. 즉 이번 재해는 천재가 아니라인 재였던 것이다.

(36) 会社の経営は最悪の事態を迎えている。要するに、人員削減はもはや避けられないことなのだ。
회사경영은 최악의 사태를 맞아했다. 즉, 이제는 인원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33)～(36)はこれまでに述べたことを別の言葉で言い換える場合に用いる「わけだ」と「のだ」である。これらも捉え直すか言い換えることを表す「つまり、ようするに、言い換えれば」のような言葉と共起することが多く、当然その韓国語訳にもこれらの意味が反映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つまり、この「わけだ」には「즉, 요컨데, 말하자면, 바꾸어 말하면」のような言葉を入れた韓国語訳が必要であろう。「것이다」を「셈이다」に替えても意味的には大きな差がないと思われる。しかし、(33)のように「わけだ」が名詞述語に付く場合、訳さないこともあるが、これも差し支えなかったら「것이다」を入れて訳した方がいいと思われる。

「わけだ」は当然な成り行きから導き出される推論過程を捉えるものであるので、「のだ」とは推論過程が異なり、韓国語訳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意味を反映するべきである。つまり、同じ関連づけを表す「のだ」と「わけだ」は、前者は単純な前後の関係の提示を表すため「것이다」をもって表現可能であるが、後者は推論過程の意味を「것이다」と何らかの形式を付け加える形で訳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것이다」に終助詞を付けるか、感嘆詞や接続副詞、その他の副詞などを付け加えれば、「わけだ」の意味を正しく訳す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単純に「것이다」にした場合は抑揚などを用いて現場を捉える話し手の感覚を「것이다」に反映する必要がある。

5. 終わりに

翻訳は、語彙一つ一つの意味を正しく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語学的な観点から見るか、それとも大体の意味を伝えるという実用的な観点から見るかによって、その判定は異なるであろう。しかし、意味を伝えればいいという立場であっても基本的には語彙に忠実な訳でなければならない。特にその形式を選んだ者の意図があるのならばそれは尊重されるべきである。つまり、省略など軽く処理した意訳はとかく専門性の欠けた翻訳か誤訳として位置づけられかねず、慎重を期すべきであろう。上記資料の例に見られるように、「わけだ」と「のだ」の韓国語訳は恣意的に行われ、それらの本来の意味が正しく反映されない場合が生じている。

意訳など様々な訳し方が可能であろうが、「わけだ」と「のだ」の韓国語訳には、帰結、納得、捉え直しの意味が反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実際の様々な翻訳例を見ると、場面によって恣意的な訳し方がされている場合があるが、話者の心的態度を「わけだ」の韓国語訳においては、「것이다」だけでなく、「것이다」に終助詞(로구만)や、副詞、接続詞、感嘆詞などを活用した訳し方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対話で移す場合は抑揚やイントネーションなどの調整が必要だと

考えられる。つまり、韓国語で納得した場合のイントネーションを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大きな意味の差はないと思い、適当に省いたり意訳したりするのでは、話して(書き手)の表現意図が伝えられず、文学作品などでは意味の単純化を招き、作品性を落としかねない。

本稿では、文末の「わけだ」「のだ」を考察の対象にしたが、「わけだ」と「のだ」には「わけです/のです」のとうな「です・ます体」や「わけですか／んですか」「わけ／の？」のような疑問文、「わけだが／のだが」のような前置き、また「独話型」「会話型」のような多様な文体をあり、今後詳しい用例を集めて考察を行い、論文に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思う。

<参考文献>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杉江厚美(2003)「「わけだ」と他の文末のモダリティ表現との違い－「のだ」との比較を通して－」『Journal CAJLE』Vol. 5
永谷直子(2001)「「わけだ」と「のだ」関する考察－情報の把握を示す場合－」『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3分冊 Vol.47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3)『現代日本語文法4 弟8部 モダリティ』くろしお出版
野田春美(1997)『「の(だ)」の機能』日本語研究叢書9，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1986)『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1991)『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松岡弘(1987)「「のだ」の文・「わけだ」の文に関する一考察」『言語文化』24, 一橋大学語学研究室
_____(1993)「再説 —「のだ」の文・「わけだ」の文」『言語文化』30, 一橋大学語学研究室
横田淳子(2002)「文末表現「わけだ」の用法－「はずだ」「ことになる」との比較－」『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28

明治・大正期資料の文体差による評価副詞類の使用実態

林禔映(全南大)

1. はじめに

本発表は明治・大正期(1868～1926)資料に用いられる評価副詞類の使用実態について文体の面から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こでいう評価副詞類とは文の叙述内容について話し手の価値判断や感情面での注釈を示すものを指し、典型的な例として「あいにく、さいわい、運よく、珍しく、気の毒に、惜しくも、意外にも」が挙げられる[1)]。工藤(1997：61)の指摘のように、評価副詞類にはそれ単独もしくは助詞「－と」や「－も」の付いた形(以下、それぞれ「と型」「も型」とする。例えば「あいにくと」「惜しくも」)で形態的に固定しているものが多く、「あいにく、さいわい」のような語単位のものや「惜しくも、意外にも」のような句単位のものが含まれる。近年、通時的かつ共時的な観点から副詞研究が盛んに進められてきているが、近代語における評価副詞類の使用実態を網羅的に調査した研究はなされていない。その一方で、近代語における「おおいに、ずいぶん、たいそう、たいへん」などの程度副詞類については市村(2012、2015)の考察がある。特に、市村(2015：33)は従来の程度副詞研究が基本的に口語文における使用状況を対象として進められ、文語・口語について区別されずに行われてきたと指摘したうえで、近代雑誌『太陽』と『明六雑誌』における程度副詞類の文体別の使用状況を調査し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現状を踏まえて、本発表では市村(2015)の調査方法を参考に、文語・口語の別による文体的特徴[2)]から、近代(明治・大正期)資料における評価副詞類がどのように使用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網羅的かつ数量的に検討する。

2. 調査対象と分析方法

用例調査には国立国語研究所が構築・提供する『日本語歴史コーパス(Corpus of Historical Japanese)」:明治・大正編』(以下、【CHJ近代】)を用いる。検索システム「中納言」を介して【CHJ近代】におけるサブコーパス(小説と雑誌をはじめ、教科書・新聞・落語)をすべて選び、コア・非コアの区別のある場合はコアに指定する[3)]。またジャンル・文体別の出現傾向を検討するため、本文種別(会話、地の文)・文体(文語、口語)

1) 近年の英語学研究において評価副詞類は、後接する文全体の意味内容を修飾する機能から、当該文もしくは対人について話し手の発話態度・様式を示す機能へ広く捉えられ、談話標識(discourse marker)もしくは語用論的標識(pragmatic marker)として分類される場合もある(広瀬2020)。

2) 野村(2011:5-11)と西田(2020:36)の捉え方に従い、文末辞を基準として書き言葉の文語体と口語体に区別する。

を指定する。さらに、対象とする語を短単位検索(語彙素読みと書字形出現形)を中心に検索するが、必要によっては文字列検索で補完する。このように収集した用例の文体情報(文体「不明」や「混在」は除く)は【CHJ近代】の提供するXMLタッグによって比較的に容易く判断できるが、個々の語における副詞用法の確例は目視によって対象外の例(例えば、連体用法や述語用法など)[4]を選別する。

次に、調査対象とする評価副詞類は、近世以前において評価を表すとされる副詞(林(2021b)の「いっそ」「せっかく」「どうせ」等)と副詞句を作る生産的な形式として挙げられる「も型」(「形容(動)詞連用形＋助詞「も」からなる」)に限ることとする。他にも評価を表す形式を広く捉えれば、形容(動)詞連用形や動詞に「－ことに(は)」「－(もの)で」「－ながら」が付いた句単位のもの[5]もあるが、近代語における使用実態の詳細についてはなお後考を期したい。

その一方で、本発表で取り上げる評価副詞類は現代語の先行研究においても評価を表す語として分類されており、渡辺(1996)の「評価の副詞」、工藤(1997)の代表的な評価成分の一部に該当する。特に、工藤(1997)は評価を表す語単位や句単位の語類を網羅的に分析しており、本発表の調査において大いに参考になる。例えば、工藤(1997：61)によれば代表的な評価成分のなかには「ちょうど、妙に、変に、早くも」のように境界事例として問題になる例であり、扱いにくいため今回の調査においても対象外とした。また、予備調査を踏まえて、近世以前や現代語の分析で評価副詞類と分類されている場合でも「折悪しく、なつかしくも、不覚にも、ゆくりなくも」などは今回用いる近代資料の調査範囲では副詞用法の用例が一定数得られないため除外した[6]。このような選別基準を踏まえ、本発表で調査対象とする評価副詞類を以下に示す。

あいにく(と)・あやにく[7]、いっそ、うれしくも、惜しくも、悲しくも、かわいそうに、感心に、けなげにも、幸運に、さいわい(に/にも/にして)、さすが(に/は)、残念にも、しょせん、せいぜい、せっかく、せめて(は)、どうせ、情けなくも、なまじ(っか)、はからずも、不幸に(も/して)、不思議に(も)、珍しく(も)

---

3) 間淵・近藤(2021:4)によれば「機械による形態素解析を実施した結果に対して人手で形態論情報を修正したサンプル」を指す。

4) 次は、対象外とした連体用法と述語用法の例である。なお、(iii)のように連用修飾の例で形容動詞連用形の「-に」形式を取っていても、「思う、見える」のような動詞の表す具体的な内容(思考や視覚など)を修飾している場合は除外する。

i)「ああけふの会はよわつた、よわつた、あのやうに唐紙扇面の攻道具でとりまかれては、さすがの僕もがつかりだ」
(安愚楽鍋・1871・初編・24オ)

ii)「今日は颶で何にも出来ませんで相悪で御座います」(春秋雑誌会話篇・1893・第二冊第十九章・35ウ)

iii) 私はかの女の旦那の友人乃至知己に思はれたのであつた。私は可哀相に思つた。
(『太陽』1917・利根川べりのある町・p.161)

5) 工藤(1997：62)には句単位の評価成分として「うれしいことに、驚いたことに」のような「-ことに(は)」、「変なもので、案に相違で」のような「－(もの)で」、「残念ながら、遺憾ながら」のような「－ながら」形式が挙げられている。参考までに、副詞句「-ことに(は)」の成立と展開については林(2018)が詳しい。

6) 関連して、ごく僅かに1例が見られる場合(下記参照。括弧内の数字は用例数を指す)についても文体差の判別できないため除外した。例えば、いみじくも(1)、運よく(1)・運悪く(1)、折よく(1)、奇特にも(1)、奇妙に(1)、卑怯にも(1)、不運に(1)、無念にも(1)

7)『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第1巻・pp.54-55)によれば、「あいにく」は語誌的には感動詞「あや」と形容詞「にくし」の語幹から成る「あやにく」から変化した語である。大正以後は「あいにく」が一般化するが、近世末から明治にかけ、語源の「あやにく」と「あいにく」が併用されることから、今回の調査において「あやにく」の語形も検索対象とした。

用例の分析に際しては、上記の評価副詞類が明治･大正期資料の文語体･口語体においてどの文体に出現するのか確認する。これによって各語が文語寄りか口語寄りかという文体差が見られるであろう。また、その際、現代語のような文体的特徴を有するかについても比較して検討できる。現代語における副詞の意味用法を整理した飛田･浅田(1994)は共起する述語の種類だけでなく、文体面の特徴についても記述しており、本発表の考察対象に関連する文体面での言及が見られる。例えば、「いっそ」については「日常会話でよく用いられ、かたい文章にはあまり登場しない」(p.59)、「さいわい」は「かなりかたい文章語」(p.162)、「なまじ(っか)」は「ややくだけた表現で、日常会話中心に用いられる」(p.404)、「はからずも」は「ややかたい文章語で、報道や公式の発言によく用いられる」(p.436)と述べている。このように、各評価副詞はそれぞれ文体的特徴を有しており、近代資料にはどのような使用傾向を見せるのか検討する。

3．明治･大正期資料における評価副詞類の使用実態

表1は本発表の考察対象の各語について、近代資料の文語体･口語体における出現数をジャンル別に集計したものである。

		初期口語 (1871-1879)	雑誌 明六 (1874-1875)	東洋学芸 (1882)	国民之友 (1887-1888)	女学雑誌 (1894)	太陽 (1895)	太陽 (1901)	太陽 (1909)	女学世界 (1909)	太陽 (1917)	太陽 (1925)	婦人倶楽部 (1925)	小説 (1887-1926)	新聞 (1875-1925)	落語SP盤 (1903-1926)	教科書 (1904-1918)	計
あいにく	文語													1	6			7
(＊：あやにく)	口語	7					2	1*							2	3	1*	16
いっそ	文語														3			3
	口語	6				1	1	1						5	7	4	1	26
案外にも	文語														1			1
	口語								1			1						2
うれしくも	文語						2											2
	口語							1		1								2
惜しくも	文語						2											2
	口語																	0
悲しくも	文語					1					1							2
	口語																	0
かわいそうに	文語																	0
	口語				2	1								3			4	10
感心に	文語																	0
	口語							1						3	1			5
けなげにも	文語																	0
	口語													1			1	2
幸運に	文語		3															3
	口語											2						2
さいわい	文語	2	16	5	5			2				1			18		9	58
(に/にも/にして)	口語	5	2					1	1		1	2		6	18	2	3	41
さすが(に/は)	文語	2	1		2		3	1		2	2			8	13		1	35
	口語	10			2		2	4	2	2	2	4	9	18	14	2	4	75
残念にも	文語					1												1
	口語											1						1
しょせん	文語		1												1		5	7
	口語	7										2		1	4		1	15
せいぜい	文語							1							2		2	5
	口語												1	1	1		1	4
せっかく	文語		1												6			7
	口語	12					3	5				3		8	7	6	6	50
せめて(は)	文語					1	1	1				1			2		2	8
	口語	1				1	1		7				1	7	3	1	1	23
どうせ	文語														2			2
	口語	2				1			2		1	1		22	1	3		33
情けなくも	文語														1			1
	口語	1																1
なまじ(っか)	文語						1								1			2
	口語	5												1		1		7
はからずも	文語						1											1
	口語												1		1			2
不幸に	文語		1	1		1	2								5		6	17
(も/して)	口語	2			1											1		9
不思議に(も)	文語														2			2
	口語					1	1				1		1	6	1		1	12
珍しく(も)	文語														1			1
	口語	1												2				3

表1に基づき、近代資料の文体による各語の使用状況を見ると、まず、評価副詞類は全体的に口語体に多く出現している。そのなかでも口語体に出現する使用率が8割を超えている語には「いっそ、せっかく、どうせ、不思議に(も)」がある。約7割以上も含めると、「あいにく・あやにく、さすが(に/は)、しょせん、せめて(は)、なまじ(っか)」も口語的評価副詞類といえる。また、用例は少ないが、「かわいそうに、感心に、珍しく(も)」も口語文での使用例に偏って用いられている。その一方で、文語体に出現する比率が非常に高い語には「不幸に(も/して)」がある。「惜しくも、悲しくも」の場合も文語体に出現する例しか得られなかったが、それぞれ2例のみであり、使用実態の把握が難しい。次に、文語体・口語体の両方で用いられる語には「うれしくも、幸運に、さいわい(に/にも/にして)、せいぜい」がある。この他に、「意外にも、残念にも、情けなくも、はからずも」は両文体における例が見られるものの、十分な量ではない。関連して、本調査の全体的な傾向として、一定量の資料を調査しても「意外にも、惜しくも、うれしくも、悲しくも、残念にも、情けなくも、はからずも」のような「も型」の評価副詞類の用例は多くは得られない。

以上、調査の結果を概観したが、以下ではいくつかの例を挙げ、注目すべき点を述べる。まず、現代語の分析(前掲の飛田・浅田1994)で指摘された文体面の特徴に関連して、本調査においても「いっそ、なまじ(っか)」は口語的な表現であることが見て取れる。しかし、飛田・浅田(1994)には「さいわい(に/にも/にして)」は「かなりかたい文章語」(p.162)と記述されているが、調査の結果によると、文語体資料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一方で、口語体資料においても頻繁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それぞれ58例と41例)。このように、「さいわい(に/にも/にして)、せいぜい」などは文語体・口語体の両方で広く用いられていたといえる。

さて、「にして」の形が付いた副詞類は文語体での使用が目立つ。例えば、「不幸に(も/して)」」は文語寄りの語である(それぞれ17例と9例)。「不幸にして」の形を取って文語体資料で用いられる例は全26例中14例(約54%)であるのに対して、「不幸にも」の形の場合は全26例中3例(約12%)である。ただし、前述したように「さいわい(に/にも/にして)」は文語・口語両用であることから、「さいわいにして」の形を取った例は文語と口語の両方で用いられている(それぞれ7例と5例)。

(1) 然れども此日の空合は<u>不幸にして</u>見謬られたりしにあらざるなきか。

(文語・『太陽』1895・取舵・p.88)

次に、前述したように、形容(動)詞連用形に付いて副詞句を作る「も型」は上代から頻繁に用いられ(西川1999)、現在に至っているが、明治・大正期資料においては用例が多く得られなかった。その一方で、注目すべきことは、「も型」を取っていた語類の多くが「－ことに(は)」が付いた副詞句(「ことに型」)を取って用いられている点である。

(2) a. 底は沈めし遠雷の轟々と躍昇るよな噴火崖壁、岩角にもたれても<u>悲しくも</u>熱き物思ひ、硫黄の臭煙せまりきて顔を捲かんとし、憂欝と通ず。

(文語・『太陽』1917・噴火山上の英雄観・p.378)

b. 彼女は子を思ふ母親の本能から激しい驚愕にうたれずにはゐられなかつた。然し<u>悲しいことに</u>、彼女は夫へむかつて、彼女の不安、不平、反抗を言ひ現はすすべを知らなすぎた。

(口語・『太陽』1925・蛇人・p.77)

これに関連して、「惜しい」の場合、「も型」の例は文語体に僅かに2例見られるのみであるが、「ことに型」の例は口語体に22例が見られる。また、「残念だ」の場合、「も型」は僅かながら2例(文語と口語に1例ずつ)見られるのみであるが、「こと型」をはじめ、「－ながら」が付いた副詞句(「ながら型」)の例は多用されている。「こと型」の例は口語体資料にのみ5例見られ、「ながら型」は文語と口語それぞれ6例と17例で、どちらも口語体資料に偏って用いられている。

(3) a. 然るうちに少々なりともやかましき財産などの有れば、みすみす他人なる我れに引わたす事、をしくも成るべく、又は縁者の中なる欲ばりども唯にはあらで運動することたしかなり、 (文語・『太陽』1895・ゆく雲・p.117)

b. 丈高く色白く、口髯も美事に生え、美事に手入れをされてゐるが、惜しいことには、下唇が反りかへつて、片端が少し曲り、稍もすれば歯茎が顕はれる。 (口語・『太陽』1909・涎・p.86)

(4) a. 彼は問題の肱懸の上に横へた左腕のまはりを、具さに検しようと思つたが、其所は残念にも肩と肩との間の谷になつて居て、一層暗く、 (口語・『太陽』1925・腕時計の怯れ・p.210)

b. 芳助は嬉しさに逆上するばかりで、自分の羽織を投げやうと、手までは掛けたが、酔つて居ても本性は有つて、思出して見ると、残念な事には土俵へ投げる程の羽織でもなく、 (口語『太陽』1901・東京病・p.86)

c. 彼女等の白い、巾広の、むちむちした肩は残念ながらその鏡の中には映らなかつた。 (口語・『太陽』1925・青い夜の飛躍・p.142)

4．おわりに

本発表では明治・大正期資料における評価副詞類について文語・口語の別による文体的出現傾向について考察した。今後、近代資料における「ことに型」「ながら型」の副詞句の文体的な出現傾向について調査するとともに、今回対象外とした語や昭和以降から現代語における評価副詞類の文体別の使用状況を明らかにしていきたい。

<調査・引用資料>

◎明治・大正編　Ⅰ雑誌／Ⅱ教科書／Ⅲ明治初期口語資料／Ⅳ近代小説／Ⅴ新聞／Ⅵ落語SP盤…国立国語研究所(2022)『日本語歴史コーパス』バージョン2022.3　https://clrd.ninjal.ac.jp/chj/、◎辞書類：『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小学館、『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飛田・浅田(1994)『現代副詞用法辞典』東京堂出版

<参考文献>（紙幅の都合上、本文に取り上げた文献のみ載せる）

市村太郎(2012)「副詞「たいそう」の変遷―近代語を中心に―」『国文学研究』167,　早稲田大学国文学会, pp.83-94

_____(2015)「雑誌『太陽』『明六雑誌』における程度副詞類の使用状況と文体的傾向」『日本語の研究』11-2, pp.33-49, 日本語学会

林禔映(2018)「副詞句「ことに」の成立と展開」『日本言語文化』45, pp.77-91,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_____(2021a)「近世資料の文体差による叙法副詞の使用実態―「サスガ(ニ・ハ)」を例にして―」『日本語教育』98, pp.237-250, 韓国日本語教育学会
_____(2021b)『日本語副詞の史的研究―評価を表す叙法副詞を中心に―』J&C
工藤浩(1982)「叙法副詞の意味と機能―その記述方法をもとめて―」『国立国語研究所報告71・研究報告集』3, pp.45-92
_____(1997)「評価成分をめぐって」川端善明・仁田義雄編『日本語文法―体系と方法―』ひつじ書房, pp.55-72
_____(2016)『副詞と文』ひつじ書房, pp.1-80
西川真理子(1997)「日本語の評価的文副詞についての一考察―「も」型から「ことに」型へ―」『甲子園大学紀要・栄養学部編』24(A), pp.123-131
_____(1999)「「も型」評価的文副詞の出現と発展について」『甲子園大学紀要・栄養学部編』26(A), pp.115-119
_____(2000)「「ことに型」評価的文副詞の出現と発展」『甲子園大学紀要 栄養学部編』28(A), pp.69-75
広瀬浩三(2020)「談話標識研究のエッセンス」『島根大学外国語教育センタージャーナル』15, pp.1-10
間淵洋子・近藤明日子(2021) 国立国語研究所「第8回コーパスを用いた言語分析」
(https://www.nijl.ac.jp/pages/cijproject/sougoushomotsu.web/text/kokugo_8_kondou.pdf)

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について

－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調査から－

崔鉉弼(韓国外大)

1. はじめに

打ちことばは、韓国の通信言語(통신언어)に当たるものであり、その特徴の1つとして「ー」、「～」などの長音符とそ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の「…」が多用されるという点が挙げられる。長音符の辞書上の意味は「長音と読まれるべきことを表す文字または記号」であり、「ー」を指す。また「～」は「ー」を波形にしたもので長音符としても使われるとされる。一方、「…」は「・」や「.」の連続ではなく、本来は「……」の形で「ぼかした語尾、さえぎられた会話」に使われる(武部1992：761)ものとされるため、本来なら長音符としては使われない。しかし、打ちことばにおいては長音符と同等に使われている(例>は、恥ずい……，もう(´□`川)ﾂｶﾚﾀ……)。特に「……」ではなく、「…」の形(例>もう進級したくなくなります…ww)か、「…」の連続の形(例>ありがとう(*´ω*)……^言^)で頻繁に使われており、長音符に準ずるものとして定着している。便宜上、本稿では長音符に準ずるもの「…」も長音符と称する。

しかし、長音符の使い方に関する説明は、あくまで正書法におけるものであり、打ちことばにおけるユーザーたちの使用意図と合致しているとは限らない。特に、打ちことばにおいては「長音と読まれるべきこと」を表すかどうか判断が難しい場合(てこと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ー，復活おめー)がある。さらに、長音符の併用(例>まじかーー…)も見られ、通常の書き言葉における長音符の使い方とは異なる場合もある。そのため、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を把握することがまず必要である。そこで、本研究では、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ー」・「～」・「…」の使用意図について、20代から50代までの日本語母語話者10人を対象とした調査結果から論じたいと思う。

2. 先行研究と研究目的

三宅(2005：255)では、「プロソディー(声の高さや長さ、強さで表される要素)は「文中・文末」の位置で「ー」、「～」などで表現できるものもあると述べており、長音符がイントネーション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可能であると述べている。

田中・林(2016)では、打ちことばにおいて長音符が様々な感情を表す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田中・林

(2016：89-92)では、打ちことばには韻律などの副言語情報や表情などの非言語情報が欠落してしまうため、それを補填するために、程度副詞、形容詞、特殊拍(例：っ,ー,～,い,ん)、記号(例：！, ?, …)、絵文字・顔文字、文末詞(例：な, よ, わ)などを使い、多彩な「キブン表現」を生産していると述べており、感情・韻律の表現の意図として通常の文に長音符をつけることがあると述べている。

これと関連し、崔(2019：27-28,　34-35)では、日本語の長音節1つは原則的に2拍からなる(城生・福盛・斎藤2011：386)が、打ちことばにはこのルールに従わない表記が多いこと、同一特殊拍の連続(/RR/, /NN/, /QQ/)は日本語の標準的な音韻体系にはないが、打ちことばでは頻繁に使われること(例>よわーーい)(城岡2012：41)について述べ、打ちことばには非規範的な特殊拍の表記が目立つことを指摘している。特に、崔(2019：42-43)でも、「長音か判断しにくい記号の添加」の意図は「副言語情報(韻律)の表現」である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

崔(2020)では、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はイントネーション表現が可能であるとし、その用例分析を通し、「①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とそれに準ずる記号は「ー」が全体の約7割を占め、「…」と「～」順で使用例が多いこと」、「②打ちことばにおいても、話しことばのようにイントネーション型の分類が可能であること」、「③長音符とそれに準ずる記号を使用した打ちことばならではの文末イントネーション機能には、『親近』、『余韻的感情』、『感情の高揚』があること」を主張している。

上記の検討からは、打ちことばにおいて長音符は感情もしくは、韻律を表すことが可能であり、長音を表すか判断が難しいものや通常の使い方とは異なるものも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しかし、日本語母語話者の感覚を踏まえたうえでの検討はまだ行われていないため、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調査を通して具体的な考察が必要である。そこで、本研究では「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研究目的とする。次は、研究方法について述べる。

3. 研究方法

調査としては、2022年6～7月にかけて日本語母語話者10人を対象とし、質問紙調査を行った。質問は20項目であり、2019～2020年にかけて収集したツイッター(Twitter)と青少年ネット掲示板キャスフィー(2020年3月付閉鎖)での書き込みのうち、長音符が使用されたもの14個と調査の意図を推測させ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半角文字使用語6個ならなる。質問は、すぐ長音であることに気づきにくいもの(例>青のハートだよ—)と2つ以上の長音符が併用されているもの(今のままだと厳しいですね—…)を選んだ。調査協力者が質問紙を見てすぐ長音であることに気づいてしまい、ほとんどの回答が「伸ばす」になることを防ぐためである。これらの質問に自由記述をしてもらった。調査協力者の情報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表1　調査協力者の日本語母語話者

調査協力者	年齢	性別	生育地
J1	20歳	女	京都府
J2	22歳	女	神奈川県
J3	22歳	女	鹿児島県
J4	23歳	男	東京都

J5	23歳	女	東京都
J6	24歳	女	奈良県
J7	31歳	女	東京都
J8	31歳	男	東京都
J9	56歳	女	東京都
J10	59歳	男	東京都

4. 分析および考察

まず、分析結果を以下の表1に示す。

表1　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

調査協力者	長音符					
	ー	~	…	ーー	ー…	~ …
J1	文面の硬さを和らげるため。感情(驚き)を表すため。	元気な感じにするため。	しみじみとしている様子を表すため。名残惜しい感じにするため。	悩んでいる感じにするため。	考えているような感じにするため。悩んでいる感じにするため。	回答なし。
J2	適当な感じ。	気さくな感じ。	しみじみと感じている。信じたくない感じ。少し否定的な感じ。	考え込んでいる。	困っている感じ。少し残念がっている感じ。	回答なし。
J3	棒読みのような冷たい印象。	明るい感じ。	悲しい感じ。	現実を認めたくない様子を表す。	言いづらいことを言う時に少し和やかにする。現実を認めたくない様子を表す。	しみじみしていることを表す。
J4	気軽さを演出するため。親しみやすさをこめるため。	親しみやすさを演出するため。	深刻に捉えてもらうため。寂しさ･虚しさを演出するため。	深刻さを出すため。	ポジティブさを表しつつ詠嘆のニュアンスを表している。	親しみやすさをこめるために「ー」を使い、悲しみを演出するために「…」を使っている。
J5	軽い念押し。ゆるさを出す。	親しみやすさを出す。	実感をこめる。思いをこめる。何とも言いがたい気持ちを表す。	考え悩む様子を表す。	考え悩む。考えを巡らせることを表す。	実感をこめる。
J6	やわらかく物を言う。軽い気持ちを表現する。「。」で終わるより気持ちを伝えられる。	元気な印象を与えるため。	驚きを表現。言いづらいことを遠慮しながら言う。感嘆している。	乗り気でないことを伝えるため。	きつい表現を避けるため。いやな気持ちを遠回しに伝える。	回答なし。

J7	なれ合い。意味はない。	仲よし。	考え深い。悲しい。残念。あきれ。	考えている。	考えている。	考え深い。
J8	気軽な感じ。意味はない。	友好な態度。	悲しい気持ち。いらだち。あきれている。	言語化できない気持ち。	残念な気持ち。悲しい気持ち。	感動。
J9	堅苦しさがないよう親しみを出している。	親しみを出している。	つぶやき。嫌な気持ち。	残念な気持ちや落ち込んでいる感じを出している。	この組み合わせは使ったことがないが、気持ちをこめた後、がっかり感を出している？。	この組み合わせは使ったことがないが、感慨深さを表している。
J10	くだけた感じを出して、相手の気持ちを和らげようとしている。本当はそう思っていない。	おどけた感じ。かわいい子ぶっている感じを出している。	感慨深さ。否定的な気持ちを柔らかく表現しようとしている。	ひどすぎると思っている。	意図的ではない感じを出そうとしている。嫌がっている。	感慨深さを表そうとしている。

表1を見ると、「ー」の使用意図は、「文面を和らげる・柔らかく物を言う」、「気軽さ・軽い気持ちを表す」、「親しみ・なれ合いを表す」、「意味はない」が挙げ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この傾向にはJ1からJ10までの世代間の違いも見られなかった。崔(2020：112)で、打ちことばにおいて「ー」が長音符として最も使用されていると報告していることと合わせて考えると、ユーザーたちは打ちことばにおいて「ー」を使い、「硬さ・堅苦しさ・冷たさ・無愛想などを避けようとする傾向が強い」と推察可能である。また、「～」の使用意図としては、主に「元気さ・親しみ・仲よし」が、「…」の場合は「しみじみとした感情表現・悲しい・残念な気持ちの伝達」が挙げ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鈴木・津田(2007)で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固有の感情分類として、「拒絶」、「自信なし」、「助言」、「推測」、「問いかけ」、「不安」、「迷い」、「余韻」、「列挙」、「話題転換」を挙げているが、今回の調査結果とはかなり掛け離れているものが多いことが分かる。これには使用例文の違い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なお、長音符の連続使用については、「ーー」は主に「考え込み・悩み」を、「ー…」は「考え込み・失望感・困惑感」、「～…」は特定が難しいという結果となった。「ー」に「…」が併用された場合は、二つの記号を併記することで新たな意図を表現するのではなく、併用された長音符それぞれの意図を生かしたもの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も確認できた。

5. おわりに

以上、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の使用意図について日本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た調査結果から述べた。「ー」が長音の機能より「気軽に親しみや文面の和らげのための意図」として使われている点は打ちことばならではの長音符の機能であると言える。韓国の通信言語では「ー」があまり使われないこととも対照的である。「～」と「…」の場合は、視覚的な印象とほぼ変わらない意図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ことも確認できた。今後は10代の日本語母語話者も対象とした調査を通し、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ならではの使用実態と意図を追究していきたいと思う。

＜参考文献＞

鈴木信雄・津田和彦(2007)「三点リーダ文の感情推定手法」『第69回全国大会講演論文集』(1), pp.71-72
武部良明(1992)『現代国語表記辞典』三省堂
崔鉉弼(2020)「打ちことばにおける長音符によるイントネーション表現に関する考察－キャスフィにおける小中高生掲示板の分析から－」『日本言語文化』51, pp.103-124
崔鉉弼(2019)「打ちことばにおける特殊拍の非規範的使用とその機能に関する考察－キャスフィの小中高生掲示板の分析を通して－」『日本言語文化』49, pp.25-46
三宅和子(2005)「携帯メールの話しことばと書きことば―電子メディア時代のヴィジュア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三宅和子・岡本能里子・佐藤彰編著『メディアとことば第2巻―組み込まれるオーディエンス』ひつじ書房, pp.234-261

韓国語母語話者における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

－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聴取練習から－

大久保雅子(早稲田大)

1. はじめに

近年、日本語教育における音声指導の必要性が徐々に認識されるようになり、教育機関によっては発音に特化した科目も設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また、オンライン教育が急速に進み、日本語音声教育においても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やオンライン講座等、様々な形態による授業実践も報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戸田2019)。一方、日本語の分節音レベルの問題に焦点をあてた教育・教材は極めて少なく、学習者に問題がみられる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を促すことが難しいという現状がある。今後、教育のオンライン化がさらに進むことが見込まれていることから、学習者にとって習得が難しいとされる音声を練習できるe-learning教材の開発および構築が重要である。

2. 先行研究

2.1 韓国母語話者における無声・有声破裂音

日本語の無声・有声破裂音における聴取上の問題は、韓国語や中国語等の母語の影響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きた。特に韓国語母語話者においては、松崎(1999)や福岡(2005)らが指摘しているとおり、韓国語の破裂音・破擦音は，平音・激音・濃音という3項対立であるのに対し、日本語では有声・無声の2項対立であるため、弁別が難しいことがわかっている。特に、語頭における有声・無声の弁別が難しいことが指摘されており、福岡(2005)は、無意味語を使用した調査結果から、韓国語母語話者には日本語の語頭の無声破裂音を有声破裂音に誤聴する傾向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その原因について、「日本語の語頭の無声破裂音は、韓国語の激音や平音の語頭と比べると帯気性が弱いために、濃音として捉えられ有声破裂音に誤聴されるのではないか」(p.33)としている。また、指導についても言及しており、「語頭の日本語破裂音の有声か無声かの違いを、学習者に強く意識化させた知覚指導が必要であり、無声・有声破裂音のミニマルペアを多く聞かせ、その違いがわかるように知覚指導や発音

指導を行うことが重要である」(p.33)と述べている。

2.2 日本語学習者への音声指導

日本語学習者の音声上の問題は母語の影響によるものが多く、同じ母語話者が集まっているクラスであれば音声指導を行いやすい。しかしながら、母語の影響によるものだけでなく、母方言や個人要因も影響しているため、戸田・大久保(2014:3)は従来型の対面式授業の問題点を指摘し、教師が学習者一人一人の発音を聞き、修正するという授業形態には限界が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したがって、対面式授業だけで学習者個々の音声上の問題を改善させることは難しく、学習者の自律学習を促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近年、日本語発音関連のe-learning教材が複数開発されており、インターネットを活用した学習者の自律学習が可能になってきた。それに伴い、当作(2019)は、テクノロジーの使用と教育効果、学習効果の関係を明らか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指摘しており、大久保(2022)は、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自律学習においても学習効果を検討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述べている。学習者にe-learningを活用した自律学習をただ促すだけでなく、効果的な教育方法および学習方法を明らかに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3. e-learning教材「日本語の音　聞き取りクイズ」

本研究では、日本語音の聴取練習ができるe-learning教材の開発を行った(https://jphedu.com/)。本e-learning教材には、「Course A」、「Course B」、「Course C」の3つのコースが設けられており、「Course B」が無声・有声破裂音の聴取を練習するものになっている。
各コースには、「診断テスト」「クイズ(10回各5問)」「確認テスト」が用意されている。このうちの「クイズ」は、男女の会話「○○さん、_____行きませんか。」(男性)、「えっ、_____？」(女性)を聞き、下線部(地名)を選択肢から選ぶ問題である。下線部には、語中位置および音環境を考慮しながら、ターゲット音(誤聴する可能性がある音)が含まれる実際の地名(日本および海外)を入れた。なお、クイズの音声は、何度でも再生可能で、よく聞き取れなかった場合には、繰り返し聞いた後に答えを選ぶことができる。答えを選んだ後は、1問毎に「正解」、「不正解」が表示される。各5問が終わると5問全体の「正解」、「不正解」がまとめて表示される機能(View Questions)に加え、最初からもう一度練習できる機能(Restart Quiz)も備わっている。

4. 調査

本研究では、韓国語母語話者における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状況および練習の効果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本e-learning教材の使用データを分析することとした。

調査協力者は韓国のA大学で日本語を学ぶ学習者4名である。学習者は5週間(週に1回)、「日本語の音　聞き取りクイズ」のCourse Bを使用して練習を行った。練習方法は、毎週クイズを2回分ずつ行うこととし、各回で間違えた問題があった場合、もう一度その回のクイズを最初

から行い、全問(5問)正解するまで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ルールを定めた(1回の想定練習時間10分)。また、本e-learning教材には各回5問終了時に、練習に関する「感想[1)1)]」を提出する機能が備えられており、本調査では毎回5問正解した後に「感想」の提出を課した。さらに、調査期間終了後、e-learning教材および聴取練習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た。本発表では、「アンケート」および「感想」の質問項目の一部を取り上げ、分析を行う。

5. 調査結果および考察

「アンケート」の質問項目「【練習参加前】清音と濁音の聞き分けは、どのくらい難しかったですか。(5段階評価)」および「【練習参加後】清音と濁音の聞き分けは、どのくらい難しいですか。(5段階評価)」の回答結果を表1に示す。この結果から、本調査協力者の学習者には元々、無声・有声破裂音の問題点はあまり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ものの、練習後に4人中3人が、難易度が下がったと回答しており、少なからず改善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学習者Dには変化がみられないが、記述に「男の人と女の人の発音が時々違う感じがするときがありました。」とあり、聴取における気づきが得られている。以上のことから、本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練習において、一定の効果があったことが推察される。

＜表1＞学習者別練習前・練習後の「無声・有声破裂音」難易度

学習者A		学習者B		学習者C		学習者D	
練習前	練習後	練習前	練習後	練習前	練習後	練習前	練習後
2	1	3	2	2	1	2	2

※(5:非常に難しい、1:難しくない)

次に、「感想」の質問項目「どの音が難しかったですか」の回答結果を表2に示す。全50問中、学習者が難しいと感じた音が含まれている語は8語であった。

＜表2＞聴取が困難であった語および記述内容

語	記述内容(原文ママ)
バリャドリッド (4名)	・「ドリッド」が「ドリット」のように聞こえて区別しづらかったです。「ッ」の次に来る濁音の発音が強くなって、音の強い清音と紛らわしいと思います。(A) ・何度聞いても 「バリャドリット」で間違えてしまいました。 特に、女性の声はずっと「ト」と聞こえてきました。(B) ・(記述なし)(C) ・「ど」が女の人の発音で、何回聞いてみても「と」と聞こえました。(D)
シュリーブポート (2名)	・「ブ」が一瞬「プ」に聞こえました。(A) ・ブがはっきり聞こえなかったので何度も聞きました。(B)

1) 感想は、「練習はどうでしたか。」、「間違いやすい音がありましたか。」、「どの音が難しかったですか。」、「クイズに正解するまで、何回音声を聞き直しましたか。」、「感想を書いてください。」の５つの質問項目が設けられている。

カル**ピ**(1名)	ba行とpa行を区別するために、いつもより集中してしまいました。発音の強さの区分に弱いのかもしれません。(B)
コロン**ブ**(1名)	・女の「コロンブ」で「ブ」の撥音が一瞬「プ」のように聞こえました。(A)
ポキ**プ**シー(1名)	プがはっきり聞こえなかったのでもう一度聞きました。(B)
バンゴー(1名)	パンゴーとバンゴーが混同されました。バンの発音が私には強く聞こえました。(B)
は**た**ごまち(1名)	女の人ではだごまちのように聞こえました。(D)
う**け**ば(1名)	「うげば」って聞こえたけど、「うけば」だった。何回を聞き返しても「うげば」に聞こえる。[2] (C)

表2から、聴取が困難だった8語中7語が語中であり、また、有声音を無声音に誤聴した語、無声音を有声音に誤聴した語が半々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興味深いことに、4人全員が「バリャドリッド」の語末の「ド」を「ト」に誤聴していた。これらの結果は、福岡(2005)の「日本語の語頭の無声破裂音を有声破裂音に誤聴する」傾向と異なっており、語頭の無声・有声破裂音の指導だけでは不十分であることが示唆された。

また、表2の記述内容には女性の発音の聴取が難しかったという指摘が4か所みられており、日本人の発音の個人差が学習者の聴取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が示唆された。これにより、同一のモデル音声による聴取練習では不十分であり、様々な音声による聴取練習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さらに、表2の記述内容に、促音および撥音の後の有声音についての言及が 2 か所あり、音環境による音声特徴の違いが、学習者の聴取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も示唆された。無声・有声破裂音の聴取にあまり問題がない学習者でも、音環境によっては聴取が困難となる可能性があり、今後、量的調査および音響解析によって明らかにしていく必要がある。

6. まとめ

本調査結果から、e-learning教材を使用して5週間、週に1回の練習で、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が進むことが示唆された。また、聴取が困難となる要因として「日本人の発音の個人差」、「音環境」の影響が示唆されたことにより、聴取練習は教科書の音声や一人の教師の発音による練習では不十分である可能性が示された。様々な音環境、様々な日本人の発音で練習することにより、無声・有声破裂音の習得が進んでいくと考えられる。

今後の課題として、どのような音声特徴が学習者の聴取に影響す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本e-learning教材における学習者が聴取困難であったモデル音声の音響解析を行う。また、調査協力者の人数を増やして調査を継続し、韓国語母語話者が無声・有声破裂音を習得するための効果的な練習方法を検討したい。

2) 正解は「うけば」であり、記述内容では正解と誤答が逆になっているが、クイズデータから「うけば」を「うげば」に誤聴したことがわかっているため、記述ミスと思われる。

<付記>
本研究は、JSPS科研費 20K22237,21K13035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ある。

<参考文献>

大久保雅子(2022)「e-learning教材を使用した無声・有声破裂音の聴取練習-中国語母語話者を対象として-」『日本語教育方法研究会誌』28(2), 136-137.

当作靖彦(2019)「ネットワーク時代の言語教育・言語学習」当作靖彦監修・李在鎬編著『ICT×日本語教育-情報通信技術を利用した日本語教育の理論と実践-』2-21, ひつじ書房

戸田貴子(2019)「ブレンディッド・ラーニング-新たなモデルの構築と音声教育実践-」『早稲田日本語教育学』26, 1-20

戸田貴子・大久保雅子(2014)「新しい音声教育実践における学習者の学び－オンデマンド併用授業における発音学習－」『早稲田日本語教育学』16, 1-18.

福岡昌子(2005)「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破裂音の縦断的習得研究-知覚-」『三重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7, 25-34.

松崎寛(1999)「韓国語話者の日本語音声-音声教育研究の観点から-」『音声研究』3(3), 26-35.

手記研究の可能性と課題

－望月カズを事例として－

樋口謙一郎(椙山女学園大)

1. はじめに

本研究は、「手記」(Memoirs)の史料性を分析する手法を検討し、「満州で孤児となり、戦後は韓国で130人以上の孤児を育てた日本人女性」として知られる望月(永松)カズ(1927-1983年)の手記を韓国現代史研究に活用・応用する道筋を見出すことを目指すものである[1)]。

手記とは「特に、自分の体験などを自分で書き記したもの」(『精選版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2006年)と位置づけられる。カズが著者名となっている手記は2冊あり(永松1965、1971)、筆者はそれらの手記に基づき、周辺資料を加味してその生涯を書き起こす作業をしてきた[2)]。2冊の手記はどちらもカズの幼少期からの労苦に満ちた半生をカズ自らが述べたもので、いわゆる「自らも孤児であり日本人女性でありながら、朝鮮戦争後の貧しい韓国で孤児130人以上を育てた偉人」というカズの人物像を形成するのに寄与しているといえる。

しかし、カズの2冊の手記はカズが生前に著したものであり、晩年のカズの生活や考えは述べられていない。また、各種資料に基づけば、(カズの手記の記述の中心を占める)孤児養育以外の面でのカズの言動や性格に対する周囲の評価は「毀誉褒貶相半ば」である。その点を踏まえると、手記を中心に構成されるカズの「物語」は、「美談の一人歩き」という面がないわけではなく、手記に表れていないカズの支援者の心情(熱意、葛藤、対日／対韓感情)や、カズの死後における多様かつ複雑な問題(カズの資産や養子たちの法的・社会的地位ならびに境遇)などに対するまなざしを曇らせる可能性さえある。さらに近年、カズの手記やそれに基づく第三者の語りが、カズ個人の「偉人性」の評価を超えて、必ずしも公平とは言いがたい描写によって、自国(日本)に対する過度の礼賛やナショナリズムの補強に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点は、学術的な見地からは看過しがたい。

「史実」に忠実であるためには、私文書たる手記を排除するという考え方もありうるだろう[3)]。しかし私文書には、公文書などには書かれていない、現場の、当事者にとっての歴史の

---

1) 望月カズの姓の変遷については複雑な経緯があり、以下、本稿では「カズ」と表記する

2) 紙幅の都合により、その作業(一部)は樋口(2015)を参照されたい。

3) 細谷(2017)は次のように述べる：「私文書は個人の主観や記憶違いといった問題が避けがたく内在しており、その点は

真実がある(かもしれない)。韓国近現代史、日韓関係史を考察する上でも、既存の膨大な手記の存在を無視することが得策とはいえない。

2. 手記分析の必要性

通常、手記を読むという営みは、創作作品を読むのとは異なり、そこに書き手が知り得た事実が書かれているだろうという期待と信頼とともになされる。一方、書き手は自己記述たる手記において「物語化」(narrativization)、すなわち過去の記憶を取捨選択したり、変容させたりすることで一貫性を持った物語を生成する。手記のうち近代日本の無名の人々の日記に着目した田中(2022)が述べるように、「個人の日記は歴史記述を補い、掘り下げ、相対化する可能性を秘めた貴重な資料である」が、「実際には往々にして、他者の眼差しを意識した取捨選択と虚実からなる自己演出の記録でもある」。歴史家たちがこの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こそ、従来、手記は公文書や回顧録(autobiography)、伝記(biography)などに比して、史料的価値の低いものとみなされる傾向にあった[4]。学術的手続き(歴史記録としての妥当性の検証)を経ないまま手記が読まれれば、偏った歴史認識が形成されることさえある。

このような手記の両面性を克服する方途はないものか。われわれは手記を「読む」か「無視する」かのどちらかに固執するのではなく「分析する」ことにより、手記の史料性を問うことはできないのか、そのためには、いかなるアプローチが考えられるであろうか。

この点を論じる前に、「手記」をもう少し詳細に区分しておこう。「手記」を「(書き手が)自分の体験などを自分で書き記したもの」とした場合、そこには体験記や日記、さらに回顧録なども含まれ得る。「日記」については、アラシェフスカ(2011)が「定期的、個人的、同時代的な記録文書」と定義している。より具体的に、日記とは、①「日付の入った記事を定期的に」、②「特定個人」により、③「出来事や活動の発生直後か、それにきわめて近い時点で」作成されるものとされる。

アラシェフスカは③につき「回想に起因する問題で記録が歪められることは最小限にとどまる」と強調するのだが、いうまでもなく出版物としての日記の場合、必ずしもその限りではない。否、出版などされずとも、「読者の眼差しを意識する限りにおいて、日記の書き手は綴る出来事や感情を取捨選択して『見られても良い自己』『見せたい自己』を演出する」のである(田中2022)。

「回顧録」(回想録)の定義はさらに難しいが[5]、何らかの事件や時代に関する振り返りを中心に記述されるものであるであり、執筆当初より「記録」「証言」として残すことを企図したもの

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公文書は基本的に政府の記録であり、客観的で信頼性が高い。十分な公文書があれば、完全にとは言いませんが、かなりの程度、歴史を再現することは可能です」。

4) 「手記」と「回顧録」の違いについては様々な見解があるが、本研究が着目する「手記」とは自己の体験や感想を自ら記した日記や体験記など「一人の人間の自由な思い」が記されたもの指すものとする。それに対して「回顧録」は、著名人が執筆当初より「記録」として残すことを企図し、しばしば特定の事象や事件に関する振り返りを中心に記述されるものであり、その主題性や体系性において「手記」とは区別されるべきものとして捉える。

5) 参照：国立国会図書館・レファレンス協同データベース(管理番号 202011.1)
https://crd.ndl.go.jp/reference/modules/d3ndlcrdentry/index.php?page=ref_view&id=1000290227

を指す、とここでは位置づけておこう。この種の回顧録は枚挙に暇がなく、また、このような位置づけに合致しない「手記」こそ、日韓間にはあふれている。

結局のところ、「日記」も「回顧録」も、読者が想定された時点で、程度の差はあれども「回想に起因する問題で記録が歪められること」はありうる。この点を踏まえて、ここでは「手記」を「記録性は必ずしも意識しないが、読者を想定した体験記」と位置付けておく。

以上の事柄をもとに、ここでは3つのアプローチを提起したい。

3. 手記分析の3つのアプローチ

3.1 鑑賞的アプローチ(？)

これは、所与の手記をそのまま読む、書き手のことばに忠実に耳を傾けるということから始まる。手記の特徴は、書き手の立場や生活像、行為者性がそこに強く表れ、かつ多くの場合、それが長期的(恒久的)に紙媒体などに「残る／残す」ことを念頭に、書き手本人によって記述されることにある。このことから、手記にはほかの文字資料にはない情報や重要なミクロストリアが含まれていることもあり、公文書などにはない歴史の断面や裏面が見えてきたり、書き手の「見せたい自己」を見ることにより書き手自身を理解できたりすると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

ただし、いうまでもなく、このアプローチでは、読み手が批判的に読めなければ、手記に書かれた内容をそのまま信じてしまい、そこに事実でないことが盛り込まれていても気づかないとか、甚だしくは書き手が織りなす「美談」に酔いしれ、書き手の間違い、記憶違い、矛盾を不問にしてしまう危険性さえある。

実際、カズに対する後年の「称賛」の多くは、この点にかかわる。過去の蓄積を生かした上で、カズの手記がより学術的に、かつ公平に扱われ、韓国現代史や日韓関係史の研究に貢献する可能性を模索しようとするならば、このアプローチに対するオルタナティブを見出す必要がある。

3.2 文体論的アプローチ

次に、手記の文体論的分析であり、これは一種の史料批判でもある。例えば、カズの手記を読む上で留意すべきは、カズが幼少期より満州(戦前･戦中)と朝鮮半島(戦後)に居住し、また十分な教育を受けなか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の手記は時に難解な日本語を用いて執筆されている一方、韓国語の地名･固有名詞のルビには、韓国語話者なら考えられないような誤りも多数存在する。ただし、カズ本人の「筆まめ」ぶりはよく知られており、自筆の日本語文章や手紙の写真なども数多く残っていることから、カズの手記は基本的に本人が執筆し、所々に他者の補筆や編集が入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

3.3 構築主義的アプローチ

書き手の主観と周囲の社会環境の相互影響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ものとみなしつつ手記を読むというアプローチである。一般的に言えば、ある手記がなぜその媒体に、そのタイミン

グで、その内容を、その書き方で、そしていかなる条件下で書かれたのか(コンテクスト)、そしていかなるインパクトがもたらされたかが検証され得る。

すでに述べたように、これまでカズに対する人物評価(社会的評価)は「韓国で130人以上の孤児を育てた日本人女性」というもので、その「偉人性」が強調される反面、カズの周辺の人々による毀誉褒貶については、あえて触れられないことも多く、カズの手記も大概は「美談の出典」として扱われてきた。しかし韓国現代史におけるミクロストリアを正確に把握するためには、カズに対する否定的評価も公平に検討されるべきであり、カズを知る人物の手記・回顧録、報道資料などの調査を併せて行う必要がある。

4. むすびにかえて

カズの手記は、これまでジャーナリズムにおいて注目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その学術的な討究はほぼ未踏のままである。これには関係者が存命であることや、関与者の匿名性が高いこと、カズがいわゆる「偉人」扱いされることにより再生産される情報に偏りが生じることが考えられる。実際、カズの関係者や関連資料は日本と韓国の各地に散在しており、カズの手記の真正性、信頼性、完全性、利用性を担保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

これらの困難を克服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が、カズの手記の研究を出発点として、向後、著名人や権力者ではない「無名の人々」の多くの手記の分析により、より多様な歴史観をもたらす可能性を見出したい。

<参考文献>

アラフェスカ, アンディ(2011)『日記とは何か：質的研究への応用』(川浦康至・田中敦訳)誠信書房

・川島真(2009)「『歴史』をめぐるガバナンスと文書管理：東アジア歴史認識問題をめぐる」『年報行政研究』(日本行政学会)第44号、109-123頁

・田中佑介(2022)『無数のひとりが紡ぐ歴史：日記文化から近現代日本を照射する』文学通信

・永松かず(1965)『この子らを見捨てられない：韓国孤児の母』オリオン社

・永松カズ(1971)『愛の灯は消えず：韓国孤児の母の記録』講談社

・樋口謙一郎(2015)「手記で読む望月カズの生涯：『韓国孤児の母』となった日本人女性の話」『椙山人間学研究』第10号、93-107頁

・細谷雄一(2017)「公文書がいざなう歴史への旅、未来への思考」(座談会)、『東京人』2017年4月号、20-25頁

文 化

いわゆる人情読本について

－『玉兎』を中心に－

崔泰和(群山大)

1.「人情読本」について

神保五弥は、複数の三角関係の物語を平行に進行させ、各三角関係の筋を複雑に混ぜて最後に、実はこのような関係であったと各三角関係の繋がりを説明してめでたい結末を迎えるようにした春水流の作風について、『春色湊の花』三編に春水が「羽本を読でも夫程の楽しみある様に綴り、一回読で後章を不読とも済む様に著(あらわし)て無理無体にも満尾なす」と述べているところをあげ、人情本が読者とした婦女子の読書の条件を考えるとき、それにもっともよく適応した創作手法であったと評している[1)]。そして、『春色恋白浪』(初編天保九、二編天保十二刊)や『春色袖之梅』(刊年未詳)などの春水人情本を考察し、一連の春水人情本作品が、これまでの春水流とはかわった、読本の特徴も合わせてもつ、いわゆる「読本中本両様兼対」(『春色恋白浪』二編巻末の書肆の公告)した「人情読本」になったとされる。

神保は、「人情読本」の例として『春色袖之梅』を挙げ、つぎのように述べている

> それまでの春水人情本に見られなかった人物、一刀流の達人で諸国武者修行の武士、若気のいたりで拘摸となって鎌倉を追放され、諸国俳徊中正道に帰って困窮の人に情をかける義賊の少年等が登場する。それらは、たとえば丹次郎が実は榛沢六郎成清の落胤といった形で登場するのではない。武士は武士として、義賊は義賊として一貫している。そうした登場人物は、鎌倉在住の何組かの恋人たちの恋愛関係と適宜からみあい、舞台は上州から遠江にまで拡る。物語は恋人たちの濃厚な色模様を挟みながら、文字通り物語的結末をめざして進行して行く。だからといって、それは儒教倫理と仏教の因果思想とを軸に展開する読本的構成に従うものではない。偶然の事件が登場人物のそれぞれに関係をもって、いつか大団円をめざしているものである。徹底した娯楽作品として、当時の読者の興味をひきそうな要素はすべて収めようとしたかの如くであり、しかも「春色梅児誉美」以来、ひたすら<人情≫を描こうとした結果がここにあらわれ、合巻のような不統一な性格をもつ人物は登場しない。一おう一貫した性格につらぬかれた人物が描かれており、それだけに文章

1) 神保五弥『国文学研究』(早稲田大学国文学会、一九六二、pp.155-162)

のテンポののろさ春水の読者への狂(教訓を気にしなければ、そのまま現代の時代娯楽小説としても通用するものであった。

神保は、人情本を淫蕩とする避難が激しく、道徳的見地からする非難を避けるため、春水流の人情本から武士修行などの読本風の内容を混ぜた「人情読本」へと変化を遂げた結果、「春水人情本の読者、婦女子だけでなく、読本は高級にすぎ、人情本を幼いとする残された読者をも獲得するものであった」とされる。
「人情読本」おいう名称は、「春色恋白浪」二編再摺本の奥附に<当世流行人情読本仕入問屋>として版元の名を連ねるところから確認できる。ここから神保は、

「人情読本」とは、「春色恋白浪」が<人情ものに時代のはなしを綴合せて狂言本と浄瑠璃と彼中本を参考の一流新奇新趣向>の作品であり、<読本中本両様兼対の物語>(「春色恋白浪」巻末広告)だからであった。

と「人情読本」を定義し、天保改革がなかったならば、人情読本というジャンルが確立し、今日の大衆俗小説の源流たるべきものであったとされる。
要するに、「人情読本」は、春水流の人情本の進化形だ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

2.「人情読本」の始まり

ところで、神保は、「人情読本」の始まり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こうした人情読本は、為水流の作風がもっとも強く読者に歓迎されていたときに、すでに春水に執筆の意図があったものであった。天保八年刊「春告鳥」初編の口絵の最後に、<仙遊/沈娯　楊貴妃桜　人情読本/全部五冊春水作>とある。この作品は年表に刊年未詳の部に掲げ、出版されたこととなっているが、私の考えではおそらく出版されることなく、その草稿のいくぶんかが「錦の里」に利用された、と見られるのであるが、いずれにせよ、春水にすでに<人情読本>という新しい物語の意識があったとすれば、いま「春色袖之梅」をそれの完成した作品と見ることが許される。

天保八年に刊行された『春告鳥』の口絵に『楊貴妃桜』という本が出版予定であると宣伝されているが、『楊貴妃桜』は出版されておらず、「人情読本」の形は天保十年かその前と推定される(神保)『春色袖之梅』で完成されたとされる。
「人情読本」の特徴を確認するためには、刊行年が重要になる。神保の論によると春水流の人情本がある程度流行したあとに「人情読本」が登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天保３(1832)	4	5	6	7	8	9	10	11	天保12(1841)天保の改革
梅暦シリーズ	春色梅暦 天保3-4	春色辰巳園 天保4-6			春色恵之花 天保7		春色英対暖語 天保9			春色梅美婦禰 天保12
春告鳥シリーズ						春告鳥 天保8	春告鳥続編＝春色籬の梅			
人情読本								春色袖之梅 天保10		玉兎 天保12推定

3.「人情読本」としての『玉兎』

ここに、神保によって天保十二年に刊行されたと推定される春水の人情本『玉兎』がある。『玉兎』は、清元節の代表作の一つでもあるところ、昔話のカチカチ山における爺･婆･兎･狸を踊り分けるところを目玉として、江戸時代の童唄が取り入れられている作品である。本書がこの玉兎を作品名にしているのは、子供(十四五才)のお粂や銀次郎などを主人公としている新しい趣向を強調するためであり、作品中に玉兎の詞章が使われたりはしていない。

「光涛新話」という角書にあらわれているように、春水が新しく試みた趣向は、春水人情本の常である恋敵の女達が揉める一男二女の三角関係ではなく、十四才ほどのお粂とお粂の父のような存在であった三十九才の半二郎、十六才ほどの銀次郎と三十八才のお幸との間における、各々亡霊の執着心のためという言い訳を付しての歳の差恋愛談と怪談を混ぜたものであった。

内題に「一名に曰なぞらへおはん」とあるのは、同じく歳の差恋愛を描いた清元の「おはん」(本名題「道行思案余」)の趣向をなぞ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り、第一回の書き出しが「おはん」の「顔にも咲きし初花は、杉田の梅の香も知らぬ」という詞章から始まっているのは、お粂半二郎が恋仲になることへの伏線である。

天保末、風紀壊乱を規制する当局への対応として、春水人情本は特有の艶麗な恋愛情緒を描きにくくなり、また春水自身の行き詰まりもあり、天保十年頃から春水は作風の変換を図る。上方資本の参加の故もあって、「人情読本」と称する空想的、伝奇的な要素が強い読本の趣向が入った人情本を書くようになる。したがって、怪談交じりの『玉兎』は、いわゆる人情読本と分類され、天保十二年に刊行されたと推定されている。

4. PPLから確認できる『玉兎』の刊行年

新しい趣向のなかでも、春水人情本の特徴ともいえる、作品中において実在する商品を紹

介することは、本書でも行われており、『梅の春』や『春告鳥』に使われている人形師の和泉目吉の宣伝(第十三回)、江戸麹町三丁目にあった菓子屋の桔梗屋(第二回)や馬喰町の松屋(第十七回)などの商品の宣伝の趣向が取り入れられている。

そして、その後に続く宣伝は、書肆の永楽屋が刊行した、天保八年に刊行された『大日本国郡全図』の宣伝であった。

그림 5 第17回『国郡全図』を双六のようだと遊んでいることで広告を行っている

그림 6 初編口絵道中双六で遊ぶ姿

この『大日本国郡全図』の宣伝によって、『玉兎』は天保八年に刊行された。もしくは、少なくとも八年に書かれた作品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いえよう。そして、子供達の口を借りて、『大日本国郡全図』を宣伝しているのは、次の第一回に描かれている、道中双六とくじ引きで遊んでいる子供達の場面と呼応している。子供を登場させて道中双六で遊んでいる場面をいれたのは、まるで『大日本国郡全図』の宣伝への伏線のように働いている。永楽屋が春水に『玉兎』を書かせたのは、人情本を商品の宣伝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有用であること、要するにマスメディアとしての効用をわかっていたからであろう。

5. 結論

日本近世文学の韓国語訳の現状と問題

편용우(전주대)

1. 들어가며

일본 고전문학의 한국 번역은 역사가 매우 깊다. 예를 들어 서두수는 고전시가집인 『만요슈(万葉集)』에서 몇 수를 발췌하여 「매일신보(每日新報)」에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防人歌(사끼모리우다)-拙劣한 移植」라는 연재 글을 실었다. 서두수는 경성제국대학에서 국문학(일본문학)을 전공하고 이화여전의 교수로 재직을 했던 고전문학 연구자이다. 박상현(2011)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제국 일본의 고전이 식민지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했다는 것,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번역'이라는 것이 '황민화의 채널' 역할도 했다」[1]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현(2009)은 1년 뒤 김억이 『만요슈』를 번역해 매일신보에 1943년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간헐적으로 29회에 걸쳐 연재한 『만엽집초역』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번역 모두 「매일신보」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만요슈』의 5/7조의 음수율을 최대한 맞추려 했다. 이후 일본의 패전 이후 한동안 일본문학 번역이 뜸했지만, 1960년대부터 「일본문학이 폭발적이라 할 만큼 번역」[2]되기 시작했다.

일본 문학작품의 번역에 주목을 한 선행연구로는 윤상인 등이 참여한 『일본문학 번역60년 : 현황과 분석 1945-2005』(소명출판, 2012)를 들 수 있다. 특히 60년 동안 한국에서 번역된 일본의 근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한 부록은 그 정확성을 떠나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4장을 담당했던 이한정은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어와 일본어가 사용하는 한자어의 의미 차이에서 오는 '번역투'의 어색함,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단어의 주석처리의 난해함을 지적하고 있다.[3] 한편 최관(2012)은 한국에서의 일본 고전문학 연구와 번역의 흐름을 정리해 표[4]를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연구의 기본이 번역」에 있고, 「고전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5]

이처럼 고전문학의 번역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은 연구자들에게 늘 있어왔지만,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본 고전문학 중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 근세에 집중해 한국어 번역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박상현(2011)「서두수의『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일본문화연구』제39집, p.234
2) 이한정(2014)「일본문학 번역의 양상과 연구 방향」『일본학보』제100집, p.81
3) 윤상인(2012)『일본문학 번역60년 : 현황과 분석 1945-2005』 소명출판, pp.126-149
4) 최관(2012)「한국에서 일본고전문학연구 동향-2005년~2011년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제83집, pp.71-73
5) 최관(2012), 전게논문, p.77

2. 일본 근세문학 번역

일본 근세문학의 번역 현황을 [표1]에 정리했다. 표는 최관(2012)의 표를 참조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저번역지원사업, 유명 온라인 서점의 검색 사이트를 활용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근세문학 번역서가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다. 고전문학으로서는 1973년 유정이 번역한『겐지(源氏) 이야기』(문우사)가 1945년 이후 최초의 번역서라 할 수 있다. 최관(2011)은 2011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고전문학 번역서를 정리해「고전 번역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유학 2세대가 귀국하여 완전히 자리를 잡은 21세기에 들어서서」[6]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 근세문학 역시 2000년 이후로 번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일본 근세 문학 번역서

	장르	번역서 제목	원서 제목	번역자	간행년	출판사	비고
1	하이쿠	마츠오바쇼오의 하이쿠	(松尾芭蕉)	유옥희	1998	민음사	발췌역
2	소설	호색일대남	好色一代男	손정섭외1	1998	현실과 미래사	
3	하이쿠	오쿠로 가는 작은 길	奥の細道	김정례	1998	바다출판사	
4	희곡	주신구라	仮名手本忠臣蔵	최관	2001	민음사	2007 개역, 47인의 사무라이 (고려대출판부)
5	사상	오륜서	五輪書	안수경	2004	사과나무	
6	소설	춘색 매화 달력	春色梅児誉美	최관	2005	소명	
7	하이쿠	일본하이쿠선집	松尾芭蕉,与謝蕪村,小林一茶,正岡子規,河東碧梧桐	오석륜	2006	책세상	
8	희곡	소네자키숲의 정사	曾根崎心中	최관	2007	고려대출판부	
9	하이쿠	하이쿠, 요사부손의 봄여름가을겨울	(与謝無村)	최충희	2007	제이앤씨	발췌역
10	소설	오토기보코	御伽婢子	황소연	2008	강원대출판부	
11	하이쿠	바쇼의 하이쿠 기행1,2,3	奥の細道,野ざらし紀行,笈の小文	김정례	2008	바다출판사	*3번의 증보
12	설화	류큐설화집 유로설전	遺老説伝	김헌선	2008	보고사	
13	소설	우게쓰 이야기	雨月物語	이한창	2008	문학과지성사	
14	하이쿠	밤에 핀 벚꽃-고바야시잇사하이쿠 선집	(小林一茶)	최충희	2008	태학사	발췌역
15	사상	양생훈	養生訓	강용자	2009	지만지	
16	소설	일본영대장	日本永代蔵	정형	2009	소명출판	
17	소설	하루사메모노가타리	春雨物語	조영렬	2009	도서출판 문	
18	소설	오토기소시슈	御伽草子集	이용미	2010	제이앤씨	
19	소설	짓펜샤잇쿠 작품선집	東海道中膝栗毛等	강지현	2010	소명출판	
20	사상	논어징	論語徵	이기동 외 3인	2010	그린비	
21	소설	신오토기보코	新伽婢子	박연숙	2012	인문사	2019, 지만지 출판
22	사상	동자문	童子問	최경렬	2013	그린비	

6) 최관(2012), 전게논문,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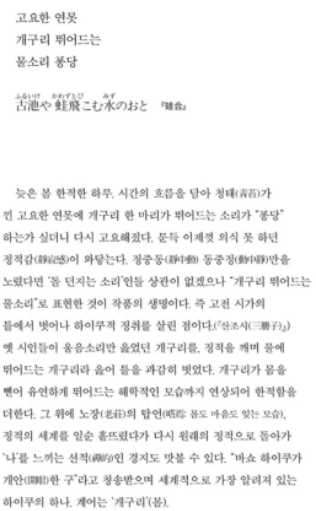
23	소설	오토기보코	御伽婢子	이용미	2013	세창출판사	*10번 중복
24	사상	논어고의	論語古義	최경렬	2016	그린비	
25	사상	맹자고의	孟子古義	최경렬	2016	그린비	
26	사상	신론	新論	김종학	2016	세창출판사	
27	사상	어맹자의	語孟字義	최경렬	2017	그린비	
28	사상	대학정본/중용발휘	大学定本/中庸発揮	최경렬	2017	그린비	
29	소설	호색일대남	好色一代男	정형	2017	지만지	*2번 중복
30	소설	우월이야기	雨月物語	강석원	2018	제이엔씨	*13번 중복
31	소설	동해도 도보여행기	東海道中膝栗毛	강지현	2019	세창출판사	*19번 중복
32	사상	서양기문	西洋紀聞	이윤지	2021	세창출판사	

장르별 구분은 하이쿠(俳句)가 6편, 소설이 13편, 희곡이 2편, 유교서와 같은 사상서가 10편, 설화가 1편이다. 하이쿠 서적의 경우 바쇼(芭蕉)를 중심으로 발췌역이 대부분으로 완역은 김정례가 1998년과 2008년에 걸쳐 출판한『바쇼의 하이쿠 기행』시리즈(전 3권)가 유일하다. 소설의 경우 가나조시(仮名草子), 우키요조시(浮世草子), 닌조본(人情本), 곳케본(滑稽本), 요미혼(読本) 등 다양한 장르의 대표작들이 번역되었다. 희곡은 닌교조루리(人形浄瑠璃)의 대표작 2편이 번역되었다. 소설이『오토기보코』(10번, 23번),『호색일대남』(2번, 29번),『우게쓰 이야기』(13번, 30번),『도카이도 히자쿠리게(東海道膝栗毛)』(19번, 31번)의 번역이 중복된 것을 생각하면, 사상서가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사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오륜서』의 번역과 한문 전공자인 최경렬에 의한 일본 유학서의 번역 등의 영향이 크다.

3. 대중서와 연구서의 경계

[표1]의 번역서는 2번의『호색일대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 혹은 연구자 출신 전문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이다. 예외인 2번 역시 비전공자인 시나리오 작가에 의한 작품이지만, 전공자의 공역으로 되어 있다. 근세문학 중 가장 먼저 번역된 바쇼의 하이쿠의 번역자 유옥희는 오차노미즈대학(お茶の水大学)에서『바쇼 하이카이에 나타난 계절관의 연구』[7]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자이다. 다른 번역자들도 대부분 관련 작품의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번역서는 일본 근세의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주석을 붙이는 작업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단 발췌역인 유옥희(1998)의 1번 번역서는 시의 번역, 원문, 해설을 한 페이지 안에서 해결하고 있어, 시라는 장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편집을 하고 있다([그림1]).

한문으로 쓰인 사상서의 경우에도 오랜 한문 번역의 역사와 한문 번역서적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익숙함으로 인해 문체와 주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가게고토바(掛詞)」,「연어(連語)」와 같이 중의적이고 언어유희적인 수사법이 난무하는 대중소설 번역에서 발생한다.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풍당

古池や蛙飛こむ水のおと 『蛙合』

늦은 봄 한적한 하루, 시간의 흐름을 달아 청태(青苔)가 낀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드는 소리가 "풍당" 하는가 싶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문득 이제껏 의식 못 하던 정적감(静寂感)이 와닿는다. 정중동(静中動) 동중정(動中静)만을 노렸다면 '돌 던지는 소리'인들 상관이 없겠으나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로 표현한 것이 작품의 생명이다. 즉 고전 시가의 틀에서 벗어나 하이쿠적 정취를 살린 점이다.(『산조시(三帖子)』) 옛 시인들이 울음소리만 읊었던 개구리를, 정적을 깨며 물에 뛰어드는 개구리라 읊어 틀을 과감히 벗었다. 개구리가 물을 뻗어 유연하게 뛰어드는 해학적인 모습까지 연상되어 한적함을 더한다. 그 위에 노장(老荘)의 탐언(嘆言: 물도 마음도 잊는 모습), 정적의 세계를 일순 훑뜨렸다가 다시 원래의 정적으로 돌아가 '나'를 느끼는 선적(禪的)인 경지도 맛볼 수 있다. "바쇼 하이쿠가 개안(開眼)한 구"라고 칭송받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하이쿠의 하나. 계어는 '개구리'(봄).

[그림 1]『마츠오바쇼오의 하이쿠』

7) 한국연구자정보(kri.go.kr) 검색(2022년 10월 1일)

『호색일대남』의 두 번역 2번과 29번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은 번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2번

벚꽃도 지고, 달도 져 왠지 허무하다. 효고현(兵庫県)의 이쿠노긴산(生野銀山), '달의 이루사야마(入佐山)'라는 노래로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여기 한 기슭에 유메스케(夢介, 꿈돌이)라는 놈팡이가 있었으니, 집안 일은 몰라라 하고 그저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욕심을 채우는 소문난 색광이었다.8)

29번

그토록 화사했던 벚꽃도 덧없이 순간에 져 버리고 산머리에 모습을 드러낸 달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마는 이루사 산(入佐山)1), 이렇듯 무상한 풍광이 펼쳐지는 다지마(但馬)2) 쪽 광산 근처에서 태어나 가업은 뒷전으로 한 채 교토(京都)3)로 올라와, 자나 깨나 여색과 남색(男色)4)에 빠져 지내는 남자가 있었다. 유메스케(夢介)5)라는 별명으로 통했는데,9)

원문

桜もちるに歎き。月はかぎりありて。入佐山(いるさやま)1)。ここに但馬(たじま)の国2)。かねほる里の辺(ほとり)に。浮世の事を外(ほか)になして。色道(しきだう)3)ふたつに。寐ても覚めても。夢介と4)。かえ名よばれて。10)

2번의 경우 거의 주석이 없이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다지마(但馬)」라는 옛지명을 효고현으로 바꾸어 놓고, 「꿈돌이」, 「놈팡이」, 「색광」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29번은 고전에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려는 자세가 보인다. 일본어나 근세 일본의 풍속을 잘 모르는 현대 독자에게는 2번의 번역에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쿠노긴산(이쿠노 은산, 혹은 이쿠노 긴잔)」과 같은 사소한 실수나, 이후 「천연두(疱瘡)」를 「포경수술」로 오역하는 등, 잘못된 번역이 곳곳에 있다. 「일본 性문학의 전설, 드디어 국내 첫 출간」이라는 책표지의 선전문구처럼 『호색일대남』을 「성문학」으로 인식하고 번역하려는 잘못된 의도가 문장 곳곳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전공자의 잘못된 의도가 오히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4. 나가며

일본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교육현장과 출판계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번역자들의 번역 자세는 대부분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성과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색일대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오역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연구서와 대중서의 두 번역 형태 모두 다른 독자층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이다.

8) 손정섭, 이주리애 역(1998)『호색일대남』현실과미래사, p.13
9) 정형 역(2017)『호색일대남』지만지, 인용의 주석은 역자가 붙인 주석임.
10) 暉峻康隆 校注(1996)『井原西鶴集１』小学館, p.20. 인용의 주석은 교주자가 붙인 주석임.

明治時代の文学における結核表象
-森鴎外の「仮面」を中心に-

2022.10.22(토)

발표자: 김효순

Ⅰ. 서론

- 근대 일본에서 결핵에 대한 지식의 확산과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리 오가이의 「가면」 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결핵 및 위생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본 문학의 결핵 표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근대 일본의 결핵 표상을 사회문화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서구 문명 및 의학의 수용으로 질병에 대한 기본 개념이 변화한 근대 초기 시기, 결핵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가 취한 감염병 혹은 위생, 방역, 검역 정책에 대한 개인의 공포, 혐오, 배제, 은폐의 심리나 태도 등의 변화를 규명하고 그것의 사회문화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

2022년 10월 13일

Ⅱ-1. 근대의학의 발달과 결핵

- 결핵은 인류 이전부터 존재
-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
- 유전설/전염설
- 300백년 전부터 결핵을 규명하고자 시도
- 유럽(영국): 산업혁명, 공업화, 도시화→결핵 증가

  런던-1800년 무렵 인구 10만명 당 결핵사망률 1000명

  일본: 에도말, 메이지 시대 식산흥업, 부국강병을 위한 산업화, 도시화 환자 수 증가 시작

  1918년 최고 275.1명
- 1882년 결핵균 발견

2022년 10월 13일

Ⅱ-1. 근대의학의 발달과 결핵

- 결핵은 19세기의 병
- 질병관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
  - 일상적 병:에도시대, 메이지 시대-눈병은 일상적 병

    헤이안시대 천연두는 위협, 에도시대, 메이지시대 일상적(要回漱石), 영국은 19세기에도 위협한 급성전염병
  - 비일상적 병: 급성전염병-유행/ 만성전염병
- 서양의 경우
  - 5.6세기의 페스트
  - 10-12세기의 한센병
  - 14-17세기의 페스트
  - 15-16세기의 매독
  - 17-18세기의 천연두(=두창=마마), 발진티푸스
  - 18-19세기의 홍역(=마진), 성홍열
  - 19세기의 콜레라, 결핵
  - 20세기의 독감, 암
  - 21세기의 에이즈
- 福田真人『結核の文化史』(名古屋大学出版会、1995)

2022년 10월 13일

Ⅱ-1. 근대의학의 발달과 결핵

- 결핵은 19세기의 병
- 질병관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
  - 일상적 병:에도시대, 메이지 시대-눈병은 일상적 병
    헤이안시대 천연두는 위협, 에도시대, 메이지시대 일상적(夏目漱石), 영국은 19세기에도 위협한 급성전염병
  - 비일상적 병: 급성전염병-유행/ 만성전염병
- 서양의 경우
  - 5.6세기의 페스트
  - 10-12세기의 한센병
  - 14-17세기의 페스트
  - 15-16세기의 매독
  - 17-18세기의 천연두(=두창=마마), 발진티푸스
  - 18-19세기의 홍역(=마진), 성홍열
  - 19세기의 콜레라, 결핵
  - 20세기의 독감, 암
  - 21세기의 에이즈
- 福田真人『結核の文化史』(名古屋大学出版会、1995)

2022년 10월 13일

Ⅱ-1. 근대의학의 발달과 결핵

- 결핵은 인류 이전부터 존재
-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
- 유전설/전염설
- 300백년 전부터 결핵을 규명하고자 시도
- 유럽(영국): 산업혁명, 공업화, 도시화→결핵 증가
  런던-1800년 무렵 인구 10만명 당 결핵사망률 1000명
  일본: 에도말, 메이지 시대 식산흥업, 부국강병을 위한 산업화, 도시화 환자 수 증가 시작
  1918년 최고 275.1명
- 1882년 결핵균 발견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문학의 조역, 배경, 단순한 에피소드

→주인공의 병,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요 모티프

1.사회화: 일상생활 속에 만연 사회병(국민병)

차별과 배제의 대상

森鴎外「仮面」

2.낭만화 : 미인, 천재, 지식인, 예술가

정열의 과다가 죽음의 원인

広津柳浪「残菊」

徳富蘆花「不如帰」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일본의 근대화와 결핵의 사회화

- 메이지 신정부의 근대화=서구화

1. 정치, 자유민권운동 → 관제개혁(1869), 폐번치현(廃藩置縣), 국회개설, 참방률(讒謗律), 신문지조례법, 교육령, 집회조례, 징병령, 보안조례 등

2. 산업화, 부국강병→산업발달
   - 殖産興業으로 국영 富岡製糸場
   - 地租改正条例→ 소작료 인상→소작농 차남, 딸, 士族、町人 도시로 유입→남입된 지조로 정부는 공장 건설, 군비증강
   - → 도시화, 인구 증가, 도시화, 노동조건의 변화 빈부 격차
   - → 영양 부실, 열악한 주거환경
   - →섬유산업 여공 결핵의 창궐
   - → 매춘 등으로 남성 접촉
   - →결핵의 만연

❖ **결핵이 국민병, 사회병**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일본의 근대화와 결핵의 사회화>

- 섬유산업 여공 결핵의 기록
  1. 農商務省編『職工事情』第一巻『綿糸紡績職工事情』、第二巻『生糸紡績職工事情』(1903)
  2. 渡辺昭『紡績工業に於ける寄宿舎女工の衛生経済』(未刊行、1907)
  3. 農商務省、石原修『工場衛生資料』(1911)
  4. 石原修『女工と結核』(講演録、1913)
  5. 石原修『衛生学上から見たる女工之現』(1914)
  6. 細井和喜蔵『女工哀史』(1925)
  7. 山本茂美『ああ、野麦峠—ある製糸女工哀史』(1967)

  - 열악한 주거환경, 불량한 영양 상태
  - 결핵에 걸리면 해고
  - 결핵 은폐
  - 진단의 지연, 병상 악화

- 낭만화와는 대조적 양상(<武夫と浪子>노래 유행)
- 일반 서민에게 결핵은 공포, 차별, 은폐의 대상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일본의 근대화와 결핵의 사회적 대책>

-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 폐병. 나병, 매독, 간질(癲狂) 등의 제병(諸病)은 부모 자식간에 서로 전달이 되어 형제자매가 그 성질을 함께 하여 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관련하여 유전이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섭생을 잘 함으로써 무난하게 생애를 마치는 자 역시 많다고 해도, 뭔가 다른 병에 신체에 고장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유전병을 합병(合併)하는 것이 보통이다. (『時事新報』1882.3.25–27)
- 로베르트 코흐(Heinrich Hermann Robert Koch, 1843 ~ 1910) 결핵균 발견(1882.3.24) 보고(결핵균 염색 가능, 현미경 발명), 콜레라균 발견(1884)

- 근대적 의학 개념에 의한 결핵 대책 강구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일본의 근대화와 결핵의 사회적 대책>

1. 1884년 大日本私立衛生会組織
2. 1893년 伝染病研究所設立
3. 1901년「畜牛結核予防法」公布
4. 教育唱歌運動――<衛生唱歌>

여유가 있는 날은 들판으로 나가(いとまのある日は　野辺にいで)

맑은 공기를 충분히(清き空気を十分に)

마시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吸うは滋養の食べ物を)

먹는 것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食うにおとらぬものぞかし)(三島通良作詞、鈴木米次郎作曲)

5. 1904　「폐결핵 예방에 관한 내무성령(肺結核予防に関する内務省令)」발령(=痰壺令)

6. "폐병은 토끼장 같은 셋집들에서 발생하여 만연하는 병이다(肺病は貸長屋に発生蔓延する一種の病気なり)"(『平民新聞』1903.12. 20)

폐병은 빈곤, 비위생, 영양부족에서 오는 사회병으로 인식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일본의 근대화와 결핵의 사회적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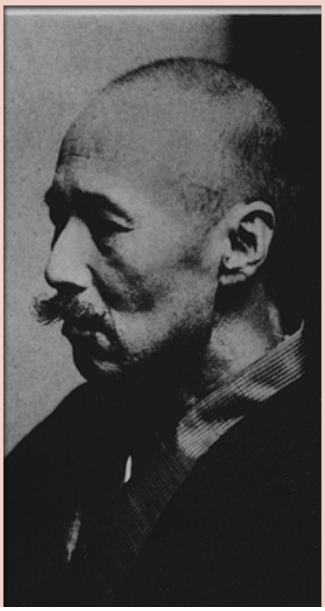
7. 1913년　日本結核予防協会　発足ー衛生講演会、博覧会、啓蒙팜플렛(パンフレット)
久米正雄『돌아오는 봄(回る春)』(小山内薫監督、1915ー1916) : 結核予防劇
8. 1914년「폐병결핵요양소 설치 및 국고보조에 관한 건」제정
9. 1917년　日本初公立療養所　大阪刀根山病院開設
10. 1919년 3월「結核予防法」公布
11. 1922년「健康保険法」制定、強制加入
12. 1928년　결핵상담소를 경시청위생부에 설립
13. 1937년「보건소법」제정

2022년 10월 13일

Ⅱ-2. 근대 일본의 결핵, 위생 정책과 문학적 재현

- 1889년 広津柳浪(1861-1928) 「残菊」
- 1890년 斎藤緑雨(1867-1904) 「唯我」
- 1894년 馬場孤蝶(1869ー1940)「流水日記」
- 1896년 樋口一葉(1872ー96), 結核死
- 1896년 若松賤子(1864ー1896), 結核死
- 1898년 徳富蘆花「不如帰」연재, 天児民恵『新 ツベルクリン療法』
- 1898년 徳富蘆花『不如帰』단행본
- 1906년 篠原嶺葉『新不如歸』 단행본
- 1908년 篠原嶺葉「新不如歸」 『京城新報)』 에 연재
  国木田独歩(1871ー1908)、結核死
- 1909년 森 鷗外(1862- 1922) 희곡 『仮面』(『昴』1909)
- 1921년 나카무라 쓰네(中村彝,1887-1924)<피를 토하는 남자(血を吐く男)>
- 小松良夫『일본근대사의 이면(日本近代史の裏側) : 結核』(清風堂書店、2000) /福田真人『결핵의 문화사(結核の文化史)』(名古屋大学出版会、1995) 참조>

2022년 10월 13일



Ⅱ-3. 군의와 문학자, 결핵환자로서의 오가이

- **모리 오가이(森 鷗外、1862- 1922)**
-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시대 소설가, 평론가, 번역가, 육군 군의, 관료
- 본명은 모리 린타로(森林太郎)
- 시마네현(島根県) 출신
- 도쿄대학 의학부 졸업
- 육군군의로서 육군성 파견 유학생으로 1884년 독일 4년 체재
  라이프치히 호프만(Franz Hoffmann, 1843-1920)
  →뮌헨 페텐코펠(ーMax Joseph von Pettenkofer, 1818-1901)
  →베를린 코흐
- 역시집 「於母影」, 소설 「舞姫」, 즉흥시인 「即興詩人」
- 문예잡지 『しがらみ草紙』 창간, 의학잡지 『衛生療病志』(1890)
- 청일전쟁 출정, 小倉 전근
- 『스바루(スバル)』 창간 후 「이타섹스아리스(ヰタ・セクスアリス)」 「雁」 발표
- 乃木希典 순사의 영향으로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발표, 「阿部一族」 「高瀬舟」 등 역사소설, 史伝 「澁江抽斎」

2022년 10월 13일

Ⅱ-3. 군의와 문학자, 결핵환자로서의 오가이

- 모리 오가이(森 鷗外、1862- 1922): 의학자, 결
- 19세에 늑막염
- 1889: 赤松藤志子와 결혼
- 1890.9.13 장남 오토(於菟) 탄생
  아내 登志子 이혼(사유, 아내 가계에 결핵?)
  10년 이상 재혼 거부
- 1890년 11월 코흐 치료약 튜베르클린 효과 보고→『衛生寮病志』11호에 게재, 13호에 신약 언급(오가이 번역)
- 1899년 장남 於菟 늑막염
- 1908년 1월 동생 篤次郎 喉頭腫出血(원인불명, 결핵성으로 추측)로 사망,
- 2월 차남 후리쓰(不律)、장녀 마리(茉莉) 백일해로 중태, 후리쓰 사망
- 6월 코흐 방일, 환대.← 위업에 대한 경의, 개인적 병력
- 주치의 額田晉(1886ー1964) : 극도로 악화된 결핵 환자、자식들에게 비밀 유지 부탁

森於菟によれば、父鷗外は母に結核を移されたと祖母が語ったという。その真相は不明であるが、少なくとも鷗外は、1909年に戯曲「仮面」（離婚して2年後に結核が発症したことを示唆）を作り、また没する10年ほど前から結核が発症していた。森まゆみ (2000)、137-183頁。山崎 (2007)、98-99頁。

2022년 10월 13일

Ⅱ-3. 군의와 문학자, 결핵환자로서의 오가이

- 위생관
- 自然科学のうちで最も自然科学らしい医学をしてゐて、exectな学問といふことを性命してゐるのに（「妄想」）
- 「今の医学はエクサクト(exect)即ち確実な学問の中に属してをりまして」(明治24年の談話, p.54)
- 「何となく喰へない先生だと云ふやうな心持ちが致しました。」(「衛生談」,p.55)
- 森鴎外の専攻した衛生学などは、自然科学中、最もエクサクトでない学問（磯貝英夫「医学者鴎外と文学者鴎外」(『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学燈社、第十八巻第十号八月号,p,53)
- 귀국 후 일본의 위생사업 추진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고 시구(市區)개정문제, 쌀밥 문제, 방역문제, 공창문제 등에 적극적 개입
- 정치를 움직여 위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꿈꿈. ㅔ.55
- 결핵관
  - 「肺労予防法之一案」(『東京医事新報』1889) : 결핵에 대한 공식 언급, 독일에서 배운 의학 지식(현미경, 살균법, 결핵균) 언급
  - '결핵(労症)은 부모에게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말은 예부터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말로 지나에서도 전사(傳死)란 말' 이 있다.
  - '결핵(労)이 마침내 온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중의 힘에 의지' 해야 한다, 특히 가래의 처리를 위해 가래 단지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0월 13일

Ⅱ-3.모리 오가이의 희곡 『仮面』의 결핵 표상

-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 희곡 『仮面』(『昴』4号、1909)
  - 저자의 두번째 창작, 1막물. 최초의 현대극.
  - 같은 해 伊井蓉峰一座에 의해 신토미좌(新富座)에서 상연

- 登場人物 : 스루가다이(駿河台) 진료소의 스기무라(杉村) 박사、가나이(金井) 부인、그 동생 문과 대학생 시오리(栞)
  - 가나이 부인의 동생의 객담 검사 결과 확인 장면으로 시작
  - 늑막염, 만성기관지염이라 얼버무림
  - 스기무라 박사가 시오리에게

    "그 무렵 때때로 감기에 걸려 가래(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네. 그런데 10월 24일이 월요일이었고 이틀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뭔가 미지근한 덩어리가 기관(器官)을 위를 향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지. 바로 옆에 현미경에 사용하는 유리 접시가 있어서 그 안에 뱉어 보았네. 그러자 말일세, 엄지손톱 정도 되는 핏덩어리가 아닌가? 나도 속으로 상당히 놀랐다네. 어쨌든 건강한 폐에서 피가 나올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말이네. 그리고 나는 그 피를 검사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 어쩐지 내 자신의 운명은 내가 장악하고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 (모리 오가이 『가면』)

Ⅱ-4.모리 오가이의 희곡 『仮面』의 결핵 표상

<동시대 결핵 의식>: 斎藤緑雨(1867−1904) 『唯我』의 경우−

- 결핵으로 사망
- 아버지 의사
- 결핵을 아름답게 묘사하기 보다는 즉물적, 현실적 묘사
  - 主人公 : 北里喜之助의 '위생' (長与専斎, 1875년 hygiene를 번역, 1867년 콜레라발생 후 유행)이라는 용어 사용
  - 신체 내부의 장기 위치

    "자네가 지금 앓고 있는폐라는 것은 심장의 오른쪽, 간장의 왼쪽에 있네. 그래서 폐를 앓는 것은 대소장 하부에 경련을 일으킴과 동시에 두개골 상부에서 충돌을 일으켜 서로 응원하기 때문인데, 모두 국민병이라고도 할 정도이네."

    お前さんの今病んで居る肺といふのは心臓の右肝臓の左にあるそれで肺を患ふのは大小腸の下部に痙攣を起こすと同時に頭蓋骨の上部で掀衝を起こし相応援するからのことで総て国民病ともいふ程のものだ。
  - 발한요법(發汗療法)의 소개

    "(폐에는 발한요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우선 클로로포름 3그램에 마그네슘 25온스나 거기에---탄산 마그네슘)

    肺には發汗療法に若くはない先づころろほるむを三グレインに麻屈涅矢亜(まぐねしあ)二十五ヲンスかそれへーーー炭酸マグネシウム"

- 폐병의 정확한 묘사에 의한 참신한 표현 초래

Ⅱ-4.모리 오가이의 희곡 『仮面』의 결핵 표상

- 모리 오가이의 결핵 인식과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
  - 니이체 『선악의 피안(善悪の彼岸)(Jenseits von Gut und B□se)』의 가면 원용

    "가축 무리의 범속을 떠나 의사를 강하게 하고 귀족적으로 고상하게 외롭고 높은 곳에 몸을 두고 싶다는 것이네. 그 고상한 인물은 가면을 쓰고 있네."

    "내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네의 병이 주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사이) 그리고 자네의 병을 치료해 주겠네."

2022년 10월 13일

에도가와 란포의 초기고찰

－초기 4작품의 특징－

신현태(상명대)

1. 서론

1922년 28살의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 이하 란포)는 그 당시 해외의 유명 추리소설의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던 전문잡지 『신청년(新青年)』에 「이전동화(二銭銅貨)」, 「차표 한장 (一枚の切符)」을 투고를 하며 일본의 추리소설 문단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듬해 란포의 두 작품이 창작소설로 『신청년』에 실리면서 1923년은 일본의 창작추리소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된다. 물론 그 전까지 일본에 추리소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말하는 메이지시대와 타이쇼시대의 중반까지 상당수의 추리소설이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서양의 추리소설을 번안한 것이거나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문장력이 떨어지거나 소재가 신선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대중문학잡지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리소설이 게재되고 있었지만 작품구성이 조잡하고 등장인물들은 인간성이 희박했으며 게다가 제재가 너무나도 통속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읽고 버리는 수준의 작품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의 란포의 등장은 실로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은 청량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로써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에도가와 란포라는 언뜻 말장난과도 같은 필명으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수많은 화제작을 발표하며 일본 추리소설사에 새로운 산맥을 형성한 란포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재기 넘치고 도전적이었던 신선한 소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고갈되어 갔고 그가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는 순문학작가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함께 에로·그로의 대표적 작가로 낙인마저 찍히게 된다.

아마도 초기 작풍과는 사뭇 달라진 몽환적이고 에로틱한 소재 그리고 고딕한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지만 그의 작품들이 영화나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 콘텐츠로서 소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란포가 이룩한 성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의 미스터리 소설[1]은 일본의 미스터리문단을 란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부동의 위치와 역사적 성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일반 연구는 물론이고 영상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재해석되

---

1) 미스터리 사전 편집위원회(2012)『미스터리 사전』 비즈앤비즈, p.14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추리소설이나 탐정소설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중략) 넓은 뜻으로 미스터리 소설의 범위는 추리소설보다 넓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 있을 정도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리문단과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받았던 란포 초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또한 초기 작품 곳곳에 창작의 이유와 방법으로 결정적인 기능을 했던 <인간의 심리에 대한 탐구>와 <지적유희>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데뷔 초기의 네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함께 어디까지나 <본격탐정소설>을 추구했던 란포의 전략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란포의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무엇이였는지를 밝히려 한다.

2. 이전동화

「이전동화」는 당시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공장 월급강탈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란포 최초의 <본격탐정소설>이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추리소설 비평가들은 「일본에도 외국의 이름 있는 작가들과 견줄만한 탐정소설가가 있다는[2)]」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의 대단한 충격이었다.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공장의 월급날을 사전에 안 강도는 신문기자로 위장하여 월급 5만 엔을 훔쳐 달아나지만 며칠 후 형사의 집념어린 추적 끝에 잡히고 만다. 그러나 쉽게 끝날 것 같았던 범죄는 강도가 훔친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사건의 진실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만다.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나」와 마쓰무라 타케시(松村武)는 담배를 사고 난 거스름 돈 중에 속이 비어 있는 이전짜리 동전에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弥陀仏)>이라는 여섯 문자가 불규칙하게 나열된 기묘한 종이를 발견한다.

돈의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보물지도라는 것을 알아 챈 마쓰무라는 암호문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결국 이중으로 꼬인 암호문을 해독하고 돈이 은닉된 장소를 알아내 돈을 수중에 넣지만 그 돈은 위조지폐로 밝혀진다는 내용이다.

언뜻 허망한 결말에 맥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단품에 은닉되어 있는 란포의 <지적 유희>를 추구하려는 정신과 새로운 창작추리소설에 대한 갈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란포의 필명이 추리소설의 비조 애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이름을 따랐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작가들이 포의 영향을 받았고 그 수용의 과정에서 란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대학 시절 포와 셜록 홈즈를 창조한 코난 도일의 작품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것이 연보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란포가 포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증거로는 독특한 필명 이외에도 본고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4작품 중 2작품이나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전동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D언덕의 살인사건」이다.

39살의 나이로 요절한 포는 작품 수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장 이색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황금벌레(The Gold Bug)」이다. 우연히 보물지도를 손에 얻은 주인공이 하인과 함께 보물지도의 암호를 해독하여 보물을 발견한다는 스토리이다.

「이전동화」에서 마쓰무라는 <나무아무타불>이라는 한자의 불규칙한 배열을 맹인들이 점자를 읽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중으로 복잡하게 얽힌 암호문을 해독한다. 「황금벌레」에서는 영어문장에서 가장 빈번한 확률로

2) 天沢退次郎(1992)「魔界都市の幻想と妄想」『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学灯社, p.37

사용되는 모음이 <e>이라는 것을 전제로 암호문을 숫자와 연동시켜 해독한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불규칙한 한자의 나열을 맹인들의 점자를 읽는 방식을 응용해서 해결했고 후자는 영어문장에서의 빈도의 확률을 숫자의 조합과 함께 배열함으로써 암호를 풀어냈다.

확실히 「이전동화」가 「황금벌레」에게서 많은 힌트를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전동화」와 「황금벌레」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른바 <지적유희>라는 것에 「이전동화」가 훨씬 더 충실했다는 점이다. 또한 「황금벌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중유희>를 차치하더라도 마지막 장면에서 위조지폐로 마무리되는 완성미는 그 때까지 일본의 추리소설에서는 보지 못 했던 근대적 감각조차 엿볼 수가 있다.

암호풀이라는 충분히 도전적이면서 색다른 지적유희를 전면에 내세워 독자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자극하는 전략이 돋보였던 「이전동화」는 이중 삼중으로 반전하는 파격적인 스토리 전개와 더불어 감각적인 완결의 여운이야말로 앞으로 란포의 작품세계의 방향과 전략을 보여주는 프롤로그로써 더할 나위 없는 데뷔작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3. D언덕의 살인사건

보통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추리력을 자랑하는 탐정의 계보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큘 포와로>로 이어지고 드디어 일본에서도 날카로운 관찰력과 빈틈없는 추리력을 겸비한 명탐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란포가 창조한 「아케치 코고로(明智小五郎)」이고 아케치 코고로(이하, 아케치)가 최초로 등장하는 작품이 「D언덕의 살인사건(D坂の殺人事件)」이다.

작품을 논하기 전에 탐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작품에 한해서는 그들의 외견상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싶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포가 창조한 뒤팽은 프랑스인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를 미국인인 포가 프랑스 혹은 프랑스인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포는 자주 프랑스식 복장을 즐겨 입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는 헌팅캡에 파이프 담배를 물은 모습이 연상되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큘 포와로에게는 다소 비만형 몸매에 잘 다듬어진 카이저수염과 신사용 지팡이가 있다.

그렇다면 아케치는 어떠한가.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의 아케치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이는 25살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약간 마른 체형」이며, 「걸을 때 이상하게 어깨를 들썩이는 버릇이」있고, 「길고 덥수룩한 머리는 헝클어져」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머리를 일부러 더 헝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인지 덥수룩한 머리를 자주 긁는 것이 버릇」이고, 「복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 면으로 만든 기모노에 다 헤진 오비를 매고」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 전의 유명한 탐정들의 정갈한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조형이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날카롭게 범인을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 서구 탐정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일본에서 새롭게 탄생한 탐정은 꾀죄죄하고 어딘가 빈틈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남루해 보이는 탐정의 계보는 일본형 <본격미스터리>를 완성한 요코미조 세이시(横溝正史)의 <킨다이치 코스케(金田一耕助)>에게로 계승되어 간다.[3)]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천부적 재능으로 섬세한 관찰력, 날카로운 추리력, 무엇보다도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구심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보통사람과

3) 中川右介(2018)『江戸川乱歩と横溝正史』集英社, p.57, 용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묘사하면 킨다이치 코스케는 정리 안 된 모발 때문인지 병거지 모자를 즐겨 쓰곤 한다.

명탐정을 분류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것인데 아케치 또한 이 부분에서 서구의 탐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 헌책방의 안주인이 살해당하자 어릴 적 아케치와 소꿉놀이 친구였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해낸 추론으로 「나」는 아케치를 살인범으로 의심한다. 그러한 「나」의 추리를 아케치는 하나하나 부정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 추리는 당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 증거 같은 것은 해석의 방법에 따라 어떻게든 되는 것들이죠. 가장 좋은 탐정의 방법은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꿰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정을 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D언덕의 살인사건)

아케치가 구사하는 추리의 특징은 이처럼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꿰뚫는」것에 있었다. 이것은 「에도가와 란포가 생각하고 있던 탐정소설, 즉 <학문과 예술의 결합으로 인한 특수한 문예>에서의 그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이었다[4]」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며 다시 말해 란포의 인간 심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 정신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기능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D언덕의 살인사건」을 아케치가 아닌 작자 란포 쪽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D언덕의 살인사건」은 「심리시험」과 더불어 문단과 독자로부터의 높은 평가로 인해 란포에게 직업작가로의 길을 결심하게 만든 작품이다. 또 본문에 「D언덕은 이전에 국화인형의 명소였던 곳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화인형으로 유명한 도쿄 분쿄구의 단고자카(団子坂)를 연상시킨다.

연보에 따르면 란포는 1919년에 두 동생과 함께 단고자카에서 <三人書房>라는 문학관련 전문 헌책방을 열었고 같은 해에 결혼도 했다. 말하자면 실제로 경영하고 있었던 헌책방이 사건 현장이 된 셈이고 실제로 부인과의 사이가 좋았든 안 좋았든 D언덕의 헌책방에서 안주인이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D언덕의 살인사건」이다.

작품을 전략적인 측면으로부터 접근해보면 「D언덕의 살인사건」은 이른바 <밀실살인>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서양과 달리 동양의 가옥의 구조는 밀실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일본의 가옥 구조는 한국 중국보다 더 개방형에 가깝다. 작품 속에서도 「흔히 일본의 건축에서는 외국의 탐정소설에 있을 법한 심각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케치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 일본의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건물에서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같은 밀실탐정소설은 쓸 수 없습니다. 일본에 탐정소설이 없는 것은 그러한 생활양식이 큰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일본의 건물에서도 밀실이 구성 가능하다고 하는 일례를 보여줄 생각이 있었습니다.[5]

라고 란포 자신 또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D언덕의 살인사건」은 일본 전통가옥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

4) 浅子逸男(1994)「D坂の殺人事件」『国文学　解釈と鑑賞』至文堂, p.79
5) 玉村周(2009)「短編小説」『江戸川乱歩　徹底追跡』勉誠出版, p.29

고 인식되어 왔던 「밀실살인」이라는 서양적 특권에 대한 란포의 도전 혹은 실험적 작품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살인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헌책방의 안주인은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된다. 외출했다 귀가한 남편이 발견했을 때 온 몸에 멍 자욱이 있었고 깊진 않지만 칼 같은 흉기에 의한 상처도 보여 처음에는 가정 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받는다. 그 다음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어설픈 추론으로 인해 아케치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진범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일본식 연립가옥의 독특한 구조가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간 것임이 아케치의 추리에 의해 판명된다.

요컨대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 란포는 <일본형 명탐정>과 <일본식 밀실살인사건>이라는 자신의 창작추리소설의 두 가지 과제에 도전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가옥의 독특한 구조와 이에 따른 방의 배치에서는 밀실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형 밀실살인>이라는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는 독자들의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작자로부터 기존의 서양의 탐정과는 완연히 다른 독특한 캐릭터를 부여받고 또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추리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명탐정 아케치 코고로>의 역사적인 탄생을 보았다는 것이야말로 「D언덕의 살인사건」만이 가진 특기할만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4. 심리시험

「심리시험(心理試驗)」은 1925년 2월 『신청년』에 게재되는데 이 작품은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 범인 추궁에 활용했던 <연상진단법(連想診断法)>이 추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 구사할 여유가 없었던 아쉬움을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 아케치가 미국의 범죄학자 문스터버그의 「심리학과 범죄」를 소개하면서 「가장 좋은 탐정의 방법은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꿰뚫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정작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실험에 성공했다는 뜻이 된다.

아케치는 본문에서 <연상진단법>에 대해 「상당수의 간단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용의자의 답변의 빠르고 느림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말한다. 즉, <연상진단법>이라는 심리학적 실험방법에 사건 해결의 무게중심을 두고 <연상진단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전개되는 작품이 「심리시험」이고 「심리시험」은 어떤 의미로 「D언덕의 살인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심리시험」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가난한 대학생 후키야 세이치로(蕗屋清一郎)가 친구인 사이토(斎藤)의 하숙집 주인 노파를 살해한다. 노파는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분재 화분 밑에 숨겨두고 있었는데 사이토가 그 사실을 후키야에게 별 뜻 없이 얘기한다.

후키야는 「늙은 노인에게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으며 오히려 나처럼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가 마땅히 그 돈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노파를 살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작 「D언덕의 살인사건」의 전개와 「심리시험」의 전개에 대해 비교해 보자. 「D언덕의 살인사건」은 독자에게 진범이 누군지를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다가 종결 직전에 진범의 정체를 폭로한다. 거의 대부분의 추리소설은 마지막 대반전이 기대되고 반전의 진폭이 클수록 탐정소설의 완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심리시험」은 처음부터 진범이 누군지 알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탐정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탐정소설을 「도서(倒叙)미스터리」라고 한다.6)

「도서미스터리」는 물론 본격미스터리이고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탐정이 무너뜨려간다고 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탐정소설과 다르지 않다.

노파 살해사건의 담당예심판사는 공교롭게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사이토와 후키야를 <심리시험>의 실험대상으로 지명한다. <심리시험>이란 실험대상자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심장의 고동이나 맥박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스터버그가 제창한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장치를 말한다.

실험에 앞서 시간이 많았던 후키야는 <심리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나 어휘를 예상하여 그 단어에 연상되는 어휘에 대한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너무나 완벽한 연습은 오히려 독이 되어 사건과 관련 있는 단어에 대해 후키야의 반응이 미묘하게 빠르다는 것을 아케치가 알아차리는 계기가 된다. 후키야는 <심리시험>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단어에 대한 심적 동요가 답변시간을 느리게 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하고 만 것이다.

<심리시험>에서 거짓이 들통 나버린 후키야를 정황상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범인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추리라는 <지적유희>를 추구하고 있던 아케치에게는 필요했다. 이에 사건 전날 밤에 노파의 방에 도착한 「만요슈(万葉集)」의 대표 가인인 「오노노코마치(小野小町)」가 그려진 병풍에 새로 생긴 흠집을 증거로 노파 살해된 시간의 후키야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린다.

아케치는 작품 말미에 「심리시험은 일정의 자극적인 말에 대한 반응의 빠르고 느림을 측정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작자 란포 또한 이 방법을 이후의 다른 <본격탐정소설>에서도 활용한다.

란포는 「심리시험」에서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심리학적 지식을 의식적으로 구사하며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호기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가졌던 란포가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방법에 대한 방증이며 창작활동 전시기에 걸쳐 일관된 자세로 자리 잡는다.

또한 「심리시험」을 추리소설 작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원인과 진범을 밝혀나가는 전개 방식에 있어서 전략적 도전이었던 「도서추리」라는 방법은 새로운 추리소설을 고대했던 문단과 독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란포에게 있어 「심리시험」은 이러한 방법적 모색이 성공을 거둔 첫 번째 작품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다락방의 산책자

「다락방의 산책자(屋根裏の散歩者)」는 세 가지의 이유로 란포의 이전 작품과 구별된다.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 추구하려 했던 일본가옥에서 일어나는 <밀실살인>과 「심리시험」에서 도전했던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추리방법>그리고 <도서추리소설>이라는 란포 초기의 창작 과제가 이 작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범인인 고다(郷田)는 특별한 직업 없이 마음에 드는 하숙집을 찾아 전전하는 유민(遊民)으로 등장한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소위 서생(書生)이라는 점에 고다와 아케치는 동등선상에 있다. 고다와

6) 도서미스터리는 범인 쪽에 시점을 둔다. '뒤집어진 미스터리'이지만 시간의 전후 순서로 보면 이쪽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미스터리 장르의 특이함을 잘 알 수 있는 명칭이다. 세계 첫 도서 미스터리는 오스틴 프리먼의 1910년에 발표된 단편 「오스카브라트스키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케치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가끔은 서로의 거주지를 찾아갈 정도의 사이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탐정과 범인이 지인 관계인 것은 이전의 세 작품과는 다른 「다락방의 산책자」만의 특징인 셈이다.

이전부터 살인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고다가 새롭게 거주하게 된 곳은 아사쿠사(浅草)에 위치한 「토에이칸(東栄館)」이라는 하숙 전문건물이다. 그 곳에서 고다는 엔도(遠藤)라는 치의대생과 알게 되고 그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이유 없이 그에게 적대감을 품고 살의까지 품게 된다.

고다는 「토에이칸」에 기거하게 된 후부터 독특한 버릇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오시이레(押し入れ)」즉 '벽장' 안에서 자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벽장 윗부분의 벌어진 틈을 열어 위로 올라가 하숙집의 지붕 속을 마치 다락방처럼 자유롭게 '산책'하게 되었고 천장의 틈 사이로 하숙인들의 방을 위에서 엿볼 수 있게 되었다.

> 이런 발상은 1920년대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갖춘 전문 하숙집은 메이지시대에는 극히 적었고 도쿄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192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붕 속을 걸어서 타인의 방을 위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각 방을 셋방처럼 칸막이 식 구조로 막아 놓은 것이 아닌 견고한 벽에 의해 차단시켰기 때문에 쉽게 옆방을 엿 볼 수 없는 것이 조건이다.[7]

즉. 고다의 은밀한 산책은 결과적으로 란포가 고대해 마지않았던 <일본형 밀실>을 완성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밤마다 지붕 속을 '산책'하던 고다는 천장과 다락방을 연결하는 널빤지의 옹이가 떨어져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데 그 것이 공교롭게도 이유 없이 싫은 엔도의 방이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고 있는 엔도의 벌린 입과 널빤지의 옹이구멍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는다.

이 발견 이후 고다의 엔도 살해 계획은 급물살을 탄다. 엔도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이불을 펴고 별다른 잠버릇도 없이 곧은 자세로 입을 벌리고 잔다. 살해 방법은 간단했다. 천장의 옹이구멍과 일직선상에 있는 엔도의 벌어진 입 안으로 길고 가느다란 실을 이용해 독극물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완전무결한 <밀실살인>에 고다는 마침내 성공을 한 것이다. 엔도는 다음 날 시체로 발견 되었고 유언장은 없었지만 자살로 사건이 마무리 되고 형사들은 현장을 떠난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 아케치의 추리, 즉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추리방법>에 의해 고다는 아케치 앞에서 범행일체를 인정하면서 결말을 맺지만 사건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문장이다.

> 난 결코 자네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네. 그저 내 판단이 맞았는지 어떤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지.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네. (「다락방의 산책자」)

처음부터 아케치의 목적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애초에 직업탐정이 아닌 아케치에게 고다를 체포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가 그저 자신의 이론을 실험으로 확인하듯 그는 자신이 세운 추리가 맞는가를 범인의 고백에 의해 확인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탐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단지 서생에 지나지 않는 아케치는 일종의 유민으로 그의 존재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의 흥미는

---

7) 武田信明(1992)「屋根裏の散歩者論」p.56

범죄에 숨겨진 진실의 해명과 범죄에 관련된 인간들의 심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란포가 포의 작품을 탐독한 것도 「황금충」에 영향을 받은 「이전동화」로 문단에 등장한 것도 권선징악이나 정의실현이 아닌 인간의 심리에 대한 끝없는 흥미와 함께 집요할 정도로 추구했던 <지적유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케치라고 하는 아마추어 탐정은 란포의 일관된 의지가 돋보이는 인물조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락방의 산책자」에서 란포는 고다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독자가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작품과 만나 볼 수 있는 행운은 당시로써는 상당히 드믄 일이고 란포는 덧붙여 고다의 심리와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또 공간적 측면에서도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의 부족한 논리성을 이 작품을 통해 확실하게 불식시킴과 동시에 <일본형 밀실살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락방의 산책자」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추리방법>, <일본형 밀실살인>그리고 <도서추리소설>이라는 란포의 창작 방법이 집약되어 있고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지적유희>에 입각한 <본격탐정소설>이라는 성과와 함께 란포 초기의 추리소설의 완성으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으로 란포의 <본격탐정소설>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찰의 대상의 된 네 작품이 란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일본형 <본격탐정소설>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른 어떤 작품보다 적합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동화」의 경우, 이 작품은 대학시절 탐독하고 있던 에드거 앨런 포의 「황금벌레」의 영향이 느껴지는 일품으로 포가 개척한 암호학이란 분야를 일본의 현실에 맞게 응용했으며 「황금벌레」에는 없는 암호의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이 작품이 가진 독특함이다. 더욱이 결말 부분의 장난기 가득한 반전은 「이전동화」의 근대적 감각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암호풀이와 은닉된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은 중기 이후 란포의 대표적 창작물인 <소년 탐정 모험물>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언덕의 살인사건」에서는 최초의 일본형 아마추어 명탐정 「아케치 코고로」의 역사적인 탄생을 보았고 방법적 측면으로는 성패를 떠나 이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형 <밀실살인>을 전략으로 활용하려한 한 란포의 도전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리시험」은 란포의 <본격탐정소설>에 대한 감회와 의지가 엿보이는 소품이다. 먼저 「심리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꿰뚫는 것」이라는 추리에 대한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사되어 성공한 작품이며 나아가 <도서추리소설>라는 독특한 장르에 대한 도전에서도 기대 밖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의 산책자」에서는 란포가 방법적으로 추구했던 <도서추리소설>과 <일본형 밀실살인>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추리방법>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란포만의 독특한 <본격탐정소설>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본격탐정소설>은 란포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추리소설은 더 이상 소수를 위한 문학이 아닌 대중성과 예술성을 표방하는 하나의 장르로 발전해간다.

이후 란포의 작품에서 <본격탐정소설>을 만나보기 힘들어졌지만 적어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네 작품에서 만큼은 의식적으로 독자적인 추리소설을 모색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자신만의 독특한 추리소설세계를 창조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東アジア文学における<老い>表象

－三島由紀夫の『朱雀家の滅亡』を中心に－

李佳呟(高麗大)

1. はじめに

最近、東アジア諸国は急速な経済成長と社会発展を繰り返してきたが、1980年代以降、超少子化問題と高齢化を経験し、現在まで人口構造の変化の岐路に立た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れにつれて老人、老化、老年などの問題は現代の新しい問題として浮上しており、＜老い＞とかかわる談論が形成されてきた。こうした談論の核心的な主張は人間は年を取れば価値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考えは、文学作品において老人はたびたび力なくて弱かったり、狡猾で除け者として描写されて、反映される。

三島由紀夫(1925-1970)は『仮面の告白』(1949)、『金閣寺』(1956)などの作品で知られる小説家であり、「鹿鳴館」(1956)、『サド侯爵夫人』(1965)など劇作家としても有名である。それだけでなく、スター作家としてマスコミにおいても活発に活躍し、作家活動以外にも、映画の出演・制作、対談やインタビューにおいて大胆な発言をするなど多方面から注目される人物であった。こうした作家三島の特徴の一つとして「老い」について非常に敏感だったこと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三島は随所において「老い」については非常に否定的な見方を表わす発言をしており、作品世界においても同じくマイナス要因として、ひいては時に嫌悪を呼び起こす性質のものとして描いている。例えば、1951～1952年の小説『禁色』においては老作家・俊輔(66-67歳)が主人公として描かれているが、三島は俊輔について「疲労に充ちた」「醜い」「老人」という表現を用いてかなり否定的に形容している。また、1961年の戯曲『十日の菊』[1]には、反乱から生き延びた主人公・森(69歳)が設定されているが、三島はこの男性人物について「生ける屍として、魂の荒廃そのものを餌にして生きてゐる」[2]と解説している。こうした表現からは老いた男性に対する三島の

---

1) 『文学界』1961年12月号に発表、1962年2月に第十三回読売文学賞戯曲部門受賞をする。雑誌での発表に先立ち1961年11月29日から12月17日まで「文学座」により東京・第一生命ホールで、続いて名古屋、京都、大阪でも公演される。演出は松浦武夫、出演は杉村春子・中村伸郎・有馬昌彦・岸田今日子など。

作品の大まかな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元大蔵大臣森重臣の邸にかつての女中頭であった菊がやってくる。1936年10月13日に起きたクーデター事件で重臣が青年将校たちに命を狙われた際に、菊は寝室で体を張って森重臣を助けたことがある。叛乱軍の一人であった自分の息子を自殺に追い込んでしまった菊は、死んだ息子の復讐のために16年前に離れた森家を再び訪れたのである。しかし、やがては復讐を諦めて自分がこの家で家族の人々を助ける存在でありつづけようと決心する。

2) 三島由起夫(1966)「二・二六事件と私」(初出『英霊の声』河出書房新社, 1966年6月)『三島由紀夫全集』第32巻, 新潮社, 1975年, p.358。

反感がうかがえるところであろう。

反面、女性人物の場合は、老いのせいで醜くまた無能力となった人物として描かれていない。むしろ、重ねた歳のもたらす力強さというものを三島は、女性を通して描いている。「老い」に対するこうした両面性を見ることで生命および人生など人間の持続する「生」に対する三島の肯定的な考えがうかが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うした観点を念頭に置きながら、本発表では、(男女に対比される)老いた人物のあり方を通して表れる「老い」の意味および三島文学の死生観ついて考察する。

2. 三島由紀夫と「老い」

三島は生まれて早々に母親の手から離され、祖母の元でいわゆる「おばあちゃん子」として育てられる。神経症的な三島の祖母は自己中心的で支配欲の強い人物であり、三島は生まれてから学習院中等科に進むまで祖母の部屋で一緒に生活することを強いられた[3)]のである。幼い頃から老人の醜さ―家の中の暴君あるいは絶対君主であった祖母の狂暴なふるまいなど―を見て育ったこうした成長背景[4)]は、三島をして老いに対する嫌悪感を植えつけた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うした見方を裏付けるように三島は、祖母についていくつかの文章を残している。たとえば、「花ざかりの森」(1941)や『仮面の告白』[5)](1949)、「椅子」(1951)などの作品で「暴君のような」、「やさしく理解ある母」とは対極にあるような祖母のあり方を記述している。特に「椅子」においては、「祖母は私を病室にとじこめて置い」[6)]て、「病的な絶望的な執拗な愛情」を注いでいたと、作家自身の成長背景をかなり詳しく書いている。老人の祖母に囚われて生活していた三島は、幼い頃から死を生を垣間見られる、閉じ込められた空間の中で「老い」を、自分独特の経験を基にして捉えていったのである。

3.『朱雀家の滅亡』における「老い」

三島の1967年の作品『朱雀家の滅亡』[7)]には、老いた「女中」・おれいが登場する。老いた人間

---

3) 三島が生まれて49日目、2回に住んでいた若夫婦が子どもを育てるのは危険だという理由で、祖母・なつは初孫である三島を自分の部屋に連れてきて育てた。奥野健男(1993)『三島由紀夫伝説』(新潮社, pp.61-89)、平岡梓(1996)『倅・三島由紀夫』(文芸春秋, pp.31-47)、板坂剛(1997)『極説・三島由紀夫―切腹とフラメンコ』(夏目書房, pp.95-149)、村松剛(1990)『三島由紀夫の世界』(新潮社, pp.9-27)などを参照。

4) 三島の成長背景とかかわる研究としては、西尾幹二(1971)「「死」からみた三島美学」(『新潮』新潮社, 1971年1月号, pp.222-230)、森本哲郎(1971)「哲学的会見記―死に至る論理」(『新潮』1971年1月号, pp.231-243)、磯田光一(1974)『殉教の美学』(冬樹社)、佐藤秀明(2000)「ナルシシズム」(松本徹・佐藤秀明・井上隆史編『三島由紀夫事典』勉誠出版, pp.542－544)、山中剛史(2000)「美」(『三島由紀夫事典』, pp.567－570)など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研究は三島作品に表れる「美」、「ナルシシズム」、「精神論」など様々なテーマを彼の死と関係づけながら論述している。

5) 三島の書き下ろし長編小説『仮面の告白』は、「私」の生い立ち、祖母を中心とした家族との関わり、粗野な学友に対する同性愛的思慕、友人の妹との恋愛と結婚への逡巡などの出来事が、第二次世界大戦期および戦後の時代背景の中に描かれる作品である。

6) 三島由起夫(1951)「椅子」(初出『別冊文芸春秋』1951年3月号)『岬にての物語』新潮文庫, 1978年, p.186。

について三島は、前述したように否定的に描写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繰り返して老いた女性を描いている。なおかつ、老いた女性について、老いた男性に対する反感とは違って少なくとも『朱雀家の滅亡』に登場するように老いた「女中」に限っては、老いが醜さを代弁してはいない。

『朱雀家の滅亡』は三島戯曲の中では比較的評価の高くない作品である。三島の代表的な戯曲である『サド侯爵夫人』(1965)の後続作品ということもその理由の一つであろう。そして、作家自らが『朱雀家の滅亡』は「天皇の問題」を描いた作品だと解説したためにこの点ばかりが強調されて限定的な位置づけが与えられ、天皇への忠節をテーマとした「二・二六事件三部作」、中でも特に「英霊の声」(1966)と関連づけて論じられるのが通例となっている[8)]。

たしかに『朱雀家の滅亡』は、天皇への忠誠を中心テーマに据え、経隆と息子の経広が描かれているものの、彼らの「忠」および「死」と対立する人物として「生」を重んじる「女中」のおれいが設定されていることに注意を傾けたい。「好きなあらゆるものを詰め込み(中略)根本に両性の対立を扱つてゐる」[9)]と作品の意図を説明しているとおり、三島は経隆とおれいを中心に男女の対立を描いており、その核にあるのは生に対する態度であり、「老い」とかかわる描写である。

3.1「老い」た男性：経隆

『朱雀家の滅亡』が発表されたのは1967年10月であるが、この年4月には、三島は自衛隊への体験入隊をおこなった。そして9月には『葉隠入門―武士道は生きてゐる』の書き下ろし出版をする。このことは、1930年代末から1940年代初めにかけて校訂本の出版や解説書の刊行が相次いでベストセラーとなり、戦争熱高揚に寄与した武士道の古典的名著とされる『葉隠』に対する関心を復活させるものとして話題になった。これと同時期に三島は戯曲『朱雀家の滅亡』を書き発表したのである。それゆえ、前述の『朱雀家の滅亡』に関する研究は三島の言行とともに、二・二六事件や天皇制といった政治的な関心を分析したものが多く、作品の中心に経隆のみを置いて分析することがほとんどであった。

---

7)『文芸』1967年10月号に発表された第4幕の戯曲。1967年10月13日～29日まで東京・紀伊国屋ホールで劇団NLT公演。演出は松浦武夫、出演は中村伸郎、南美江など。1971年9月7日～14日まで東京・新宿朝日生命ホールで「三島由紀夫追悼講演」として劇団浪漫劇場公演(他に名古屋・大阪・京都公演)、演出は松浦武夫、出演は中村伸郎、村松英子など。1987年9月9日～27日まで東京・銀座セゾン劇場公演、演出は出口典雄、出演は杉浦直樹、加藤治子など。1945年の敗戦の前後1、2年という時代をその背景とするこの四幕ものの戯曲の大まかな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朱雀侯爵家は楽器琵琶の家で、当主経隆は37代目にあたるが、朱雀家は守り神である弁財天のために代々奥方を迎えないことになっていた。なぜなら、女神である弁財天の定めにより迎えた奥方はすぐに死んでしまうからである。実は、「女中」おれいと経隆とのの間に生まれた子であるのだが、長男の経広は大戦末期に自らすすんで南洋の激戦地に行き没する。その後、防空壕に直撃弾が落ちおれいも命を落とす。終戦になり焼け跡に暮している経隆の前に、経広の婚約者であった瑠璃子が花嫁衣装の十二単を着て現れる。気がふれているらしい彼女は経隆に対して滅びよと迫るが、経隆は「どうして私が滅びることができる。夙うのむかしに滅んでいる私が」という台詞を残し、幕となる。

8) たとえば、山中剛史(2007)「「十日の菊」から「朱雀家の滅亡」へ―生きのびた者の実存的地平」(『三島由紀夫研究④　三島由紀夫の演劇』鼎書房, pp.67－85)、松本徹(2009)「『英霊の声』への応答―『朱雀家の滅亡』論」(『三島由紀夫研究⑧　三島由紀夫・英霊の声』鼎書房,　pp.86－96)、池田弘太郎(1986)「朱雀家の滅亡」(『論争ジャーナル』育誠社,　1968年6月号, pp.63-69)、大久保典夫(1974)「朱雀家の滅亡―＜恋闕＞の心と文学」(白川正芳篇『批評と研究　三島由紀夫』芳賀書店, pp.248-256)などがある。

9) 三島由起夫(1967)「「朱雀家の滅亡」について」(初出『劇団NLTプログラム』1967年10月)『三島由紀夫全集』第33巻, 新潮社, 1976年, p.138。

3.2「老い」た女性：おれい

この作品で注目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おれいの「女中」という身分である。三島は、『朱雀家の滅亡』を通して家長の男性が妻(＝子どもの母)に支えられながら権威を保持するという近代の家父長制的な家庭をやや変形させ、母の代わりに「女中」のおれいによって支えられる朱雀家を描いている。経広の実の母親でありながらも、女中の身分であるおれいは「朱雀の家では、終生言つてはならん言葉(母親―引用者注)だ」[10]と母親という資格を否定されており、彼女自身もそれに従ってきた。ところが息子・経広の死を契機におれいは召使としての従順さを捨て去り、経隆を前にして経広を堂々と自分の「子」と呼ぶなど、経隆と対立しはじめる。以下で男女の対比がうかがえる大切なくだりを見てみよう。おれいが正式な妻になろうと経隆に結婚を求めるシーンである。

> **おれい**　(前略)私たちは正式に結婚してやらうぢやありませんか。(中略)これだけ生きのびたら、弁天様も怖くはありませんわ。むかしのちよつと小粋な美しかつた私なら、弁天様怖さにこんな身分に甘んじてゐる言訳も立つたでせう。それから二十年間、私はだんだん私が醜くなるのを待つたのです。もう大丈夫だわ、ここまで待てば。(顔をさし出す)どう？この皺は？今日をたのしみに一年一年私が丹念に刻んだ皺は？どう？老いと醜さが弁天様の嫉妬をしりぞけ、もう子供を産むおそれもない女は、朱雀家最初の長寿の花嫁の縁起のいい例になりますわ。(中略)朱雀家が求めてゐた花嫁は、仕合せな、若い、美しい、そしてすぐ死んでしまふひよわな女ではなかつた。朱雀家の花嫁は、もうすでに子供を産み、そしてその子を失つた、悲しみにあふれた老いたしたたかな女だつたのです。……さあ、今すぐ私たちは結婚しませう。警戒警報ぐらゐなら、区役所は事務を執つてゐるでせう。今すぐ行つて籍を入れて頂戴。宗秩寮などは、事後承諾で済ませられますよ、こんな世の中では。[11]

朱雀家の守り神である弁財天は、「嫉妬深く」[12]、そのために朱雀家の当主は花嫁を迎えることが禁じられていた。ところで先の引用には自身の「老い」を掲げて朱雀家の花嫁という立場を要求するおれいの姿が出てくる。三島文学において女性人物の「老い」および「醜さ」は、引用のように特殊な価値を持っており、むしろその人物の強い武器として活用される。詳しい年齢は示されていないものの、「二十年間、私はだんだん私が醜くなるのを待つたのです」という台詞から、おれいはおそらく50代前後であると推測できる[13]。おれいは「これだけ生きのびたら、弁天様も怖くはありませんわ」と、老いているがゆえに自分に自信を示してさえいる。先の引用においておれいは「老いと醜さが弁天様の嫉妬をしりぞけ」るとされ、自分は「老いたしたたかな女」であると勝ち誇っていた。老いたおれいは、「老い」を弁財天の力に抗する

---

10) 三島由起夫(1967)『朱雀家の滅亡』(初出『文芸』1967年10月号)『三島由紀夫全集』第23巻, 新潮社, 1974年, p.477
11) 同上. pp.498-500
12) 同上, p.449
13) 「只ほど高いものはない」のひでは55歳、「十日の菊」の菊は54歳のように明確に年齢は設定されていないが、上の引用からおれいもおそらくひでや菊と年回りが似ていると捉えられる。

武器となしているのである。ここで神的存在である弁財天が老いることのないことも注意しておきたい。「老い」はまさに人間特有の力である。それゆえ、おれいの「老い」は生きのびた惨めな醜態さではなく、花嫁に定められた運命的な「死」の原理を「長寿の花嫁」という「生」の実績で逆転させるエネルギーであり、その人間的な力の体現者としておれいが描かれている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参考文献＞

池田弘太郎(1986)「朱雀家の滅亡」『論争ジャーナル』育誠社, 1968年6月号, pp.63-69

磯田光一(1974)『殉教の美学』冬樹社, pp.13-108

大久保典夫(1974)「朱雀家の滅亡―＜恋闕＞の心と文学」、白川正芳篇『批評と研究　三島由紀夫』芳賀書店, pp.248-256

奥野健男(1993)『三島由紀夫伝説』新潮社, pp.61-89

平岡梓(1996)『倅・三島由紀夫』文芸春秋, pp.31-47

松本徹(2009)「『英霊の声』への応答―『朱雀家の滅亡』論」『三島由紀夫研究⑧　三島由紀夫・英霊の声』鼎書房, pp.86-96

三島由起夫(1966)「二・二六事件と私」(初出『英霊の声』河出書房新社, 1966年6月)『三島由紀夫全集』第32巻, 新潮社, 1975年, pp.356-368

三島由起夫(1967)『朱雀家の滅亡』(初出『文芸』1967年10月号)『三島由紀夫全集』第23巻, 新潮社, 1974年, pp.445-516

山中剛史(2007)「「十日の菊」から「朱雀家の滅亡」へ―生きのびた者の実存的地平」『三島由紀夫研究④　三島由紀夫の演劇』鼎書房, pp.67-85

村上春樹文学に投影された戦争記憶

趙柱喜(長安大)

1. 歴史にこだわる作家

村上春樹はデビューの時から、東アジアと日本の歴史にこだわり続けてきている作家である。特に中国との関連が多く、初期３部作の『風の歌を聴け』(1979)、『1973年のピンボール』(1980)、『羊をめぐる冒険』(1982)のバーテンのジェイが中国人であり、「中国行きスロウ・ボート」(1980)には３人の中国人とのエピソードが述べられている。『スプートニクの恋人』(1999)には主人公の一人であるミュウが在日韓国人として登場し、『アフタダーク』(2004)には中国人の娼婦である郭冬莉が、『１Q84』では、「柳屋敷」のセキュリティを担当しているタマル(田丸健一)が、樺太へ労働者として送られた朝鮮人の息子として登場している。

作品の主題においても、日本の歴史や戦争の記憶を積極的に取り上げている。『羊をめぐる冒険』では「羊博士」が近代日本が他民族からの交流から何も学ばなかったと批判をする。『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1994~1995)では１９３９年５月から９月にかけて発生した「ノモンハン事件」を素材に、戦争という巨大な暴力を作品に導入しはじめた。続いて『海辺のカフカ』(2002)では太平洋戦争中に女性教師の暴力で、記憶喪失になった「ナカタ」老人と、夫をフィリピン戦闘で亡くした岡持先生がすべてを運命として受け入れて生きている様子などを通じて、戦中世代の戦後の孤独で荒廃な生き方を描いた。

歴史に関する春樹の関心は益々高くなり、『１Ｑ８４』(2009～2010)では、「南京虐殺」を思わせる「歴史上の大量虐殺」に言及し、続いて最新作の『騎士団長殺し』(2017)では、もっと具体的に「南京大虐殺」で犠牲になった中国人が４０万人に至ると書いて、これに関する非難世論が日本のネットを盛り上げた[1)]。これは日本にとどまらず韓国と中国へも拡大されたが、日本とは違って、メディアの反応は類例のないほど熱く、そのほとんどは肯定的なものであった。日本の反応に関して、韓国の「中央日報」とのインタビューで春樹は次のごとく語っている。

---

1) <村上春樹氏の新刊『騎士団長殺し』の中に、「日本軍は南京で大虐殺をした」という文章があるらしい。これでまた彼の本は中国でベストセラーになるね。中国は日本の誇る大作家も「南京大虐殺」を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を世界に広めるためにも、村上氏にノーベル賞を取らせようと応援するかもしれない。>(百田尚樹のツイート)
<村上春樹が「日本軍は捕虜管理能力がなかったから、降伏した敵兵や市民を虐殺した」と最新刊『騎士団長殺し』で記述しています。フィクションではありますが、このような事実と違う表現を文章に書けば村上信者がどう受け止めるか誰にでも分かります。本当にこの輩は日本人なのか疑ってしまいます。>(桜井誠のツイート)

――今回の小説で南京大虐殺を扱って極右派の攻撃を受けた。

> *「歴史で『純粋な白黒』をつける判断はありえないと思う。だが、インターネット社会では『純粋な黒か白か』という原理で判断が成り立っているのが常だ。そうなると言葉はカチコチに固まって死んでしまう。人は言葉を石のように扱って相手に向かってとにかく投げる。非常に悲しく、危険この上ない。小説はそのような断片的な思考と対抗するために存在する。であれば、小説は一種の戦闘力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言葉を生き返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必然的に『様式(decency)』と『常識(common sense)』が求められる」*[2)]

このように春樹が、２０００年以降―勿論その前もあったが―、作品でであれ、メディアでであれ、積極的に日本の戦争責任を問うている意図は何であろうか。自国の非難世論などにも屈することなく、氏がそのようにせざるを得ない理由は何であろうか。本稿はそのような純粋な疑問から出発して、氏の作品に表れている、個人の記憶と国家の記憶の表象を探った上で、記憶と歴史に関する作家の問題意識を検討してみたい。ただ紙面の関係上、２０１３年に発表された『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以下、『色彩』)においての歴史表象が、以前の作品とは異なっているため、これをテキストとして春樹の歴史認識について分析してみたいと思う。

2. 個人の記憶、国家の記憶

『色彩』の内容を簡単に紹介すると、名古屋での高校時代、４人の友達、つまり赤松慶(アカ)、青海悦夫(アオ)、白根柚木(シロ)、黒埜恵里(クロ)と「乱れなく調和する共同体」を維持してきた、多崎つくるは、大学時代のある日突然、　何の理由も告げられずに四人から絶縁を申し渡される。その後、死の淵を一時さ迷い、漂うように生きてくるが、３６歳になって付き合った年上の恋人、沙羅に促され、あの時なにが起きたのか探り始めるという話である。

先行研究で、平野芳信は、「つくる」の大学入学を1995年4月とみなし、その年の１月の「阪神淡路大震災」と、３月に起こった「地下鉄サリン事件」を、「つくる」以外の４人の友達が名古屋を選択した「決定的な理由」として把握している[3)]。安藤礼二は、春樹が「歴史と記憶が相克し相互浸透する場を、巨大な一つの物語として」語りつづけていると評し[4)]、柴田勝二は「アジア諸国との関係における柔軟な自立性を日本が確保することを」描い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など[5)]、ほとんどが「記憶」と「歴史」に集中している。本発表でもやはり「記憶」と「歴史」問題は取

2) 中央日報(2017.7.18)「村上春樹氏「セウォル号のような集団的な心の傷、小説で書けなくても挑戦はしないといけない」
3) 平野芳信(2014.3)「『色彩を持たな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論」『山口国文学』第三十七号、pp.2-3
4) 安藤礼二(2013.6)「歴史と記憶、現実と予言　村上春樹「『色彩を持たな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について」『新潮』110(6)、pp.290-293　中央日報(2017.7.18)「村上春樹氏「セウォル号のような集団的な心の傷、小説で書けなくても挑戦はしないといけない」
5) 柴田勝二(2013.6)「せめぎあう「記憶」と「歴史」―「『色彩を持たな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について」『英語で読む村上春樹』、NHKラジオテキスト、p.154

り上げるが、それを韓国人の立場から論じてみたいと思うのである。

まず、春樹作品の特徴を見ると、男性主人公が何かを探しに旅に出ていく「seek & find」構造をしており、結論的に「宝探し」には失敗するが、その中で成長するという、「通過儀礼」として旅が描かれている成長小説が多い。『羊をめぐる冒険』では「羊」を、『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では妻を、『海辺のカフカ』では自分自身を探しに出たといえば、『色彩』では真実を探すための旅程が広げられている。作品の構造からみると、既存作品とあまり変わらないが、宝を探して帰還するということが、前作との差異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また、春樹の「宝探し」シリーズをみると、共通した流れがある。第一、主人公にある事件が発生し、第二、主人公にはそれを積極的に解決しようとする意志がないが、第三、それを解決するようにアドバイスするナビゲーター(ほとんどが女性)が登場して、第四、旅に出て、第五、一人で現実に帰還するというパターンが繰り返されている。

『色彩』でも、「つくる」が真実探しにでかけるきっかけは、恋人である沙羅―あいにく彼女は旅行会社に務めている―に促されたためである。彼女に会う前まで「つくる」は、16年間、自分が友達グループから一方的に絶交された理由について調べようともせず、そのことを「忘れ去ってしま」おうとだけしていたが、それを沙羅にいうと彼女は次のように忠告する。

> *「危険なこと」とつくるは言った。「どんな風に？」*
> *「記憶をどこかにうまく隠せたとしても、深いところにしっかり沈めたとしても、それがもたらした歴史を消すことはできない」。沙羅は彼の目をまっすぐ見て言った。「それだけは覚えておいた方がいいわ。歴史は消すことも、作りかえることもできないの。それはあなたという存在を殺すのと同じだから」(p.40)*

この会話は、これまでの春樹の歴史発言と脈を同じくしている。日本の侵略の過去はいくら消去しようとしても、新たに書き込もうとしても不可能であること、すなわち、『1Q84』」に続く歴史修正主義者や、日本右翼の歴史歪曲に対する批判のメッセージとして読みとれる。春樹はよく日本とドイツを比較しながら、歴史に対する日本の責任回避について批判してきた。

> *「ドイツ人達とは反対に、われわれは、戦争中に中国人や朝鮮人に対しおこなった残虐行為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わが国の政治家たちに憲法改正の動きが、ヨーロッパのあなた方と同様、アジアとも共通の文化的基盤をもとに互いに助け合うべきときなのに、われわれの動きを妨げてしまう」*[6)]

日本とドイツは歴史認識や戦争責任の面でしばしば比較されている。日本は首相が代わるたびにその認識にぶれを見せており、今現在は一番混沌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それに比べると、ドイツは一貫して、戦争の責任が全面的に自国にあると認め、周辺国に謝りつづけている。上で引用した春樹の発言は、ドイツのように周辺国との調和や協力を築いていくた

---

6) L'ami Murakami – Livres – Télérama.fr(2006.7.14)(芳川泰久(2010)『村上春樹とムラカミハルキ』ミネルヴァ書房、p.149から再引用)

め、つまりもっと未来志向的なアジアの発展を図るためには、日本が過去問題に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であるが、現実はそうなる見込みもなく、そのような現状に対するもどかしさを吐露しているのだと思う。このような発言からみると、沙羅が「つくる」に友達グループからの強制絶交という過去の真実を探るようにといっているセリフには、「従軍慰安婦」や「南京大虐殺」など、日本がアジア諸国と葛藤をしている歴史的事実を確認もせずに忘れようとするより、真実が何であるかを確認して、過ちは過ちとして認め、歴史の前で堂々ととした態度をとれというメッセージが含まれていると思われる。

沙羅に勧められて16年前の真実を明かすための「巡礼」を始めた「つくる」は、最初、「アカ」と会って、20歳であった大学２年生の時、自分が「シロ」をレイプし、「シロ」がその事実を「クロ」に告白、「クロ」が他の３人に知らせて「乱れなく調和する共同体」から「つくる」を排除することに決めたという話を聞く。でも「つくる」にはそんな覚えがない。ここで重要なのは、「レイプ」という歴史に関して、「つくる」と他の４人の記憶が食い違っており、さらに「シロ」を除いた３人の記憶は、一方的に「シロ」の告白に依存していることである。３人の中で誰ひとりとして「つくる」に事実確認をしないまま、共同体から追放したことから、名前に色が含まれていなくて、「微妙な疎外感」「きずつき」を感じた「つくる」の最初の予感は当たっているし、大学入学のため名古屋を発った時から、もう共同体は亀裂の兆しを内包していたかもしれなく、そのせいで部外者の「つくる」に対する気配りは全然なさ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る。さらにもっと重要なのは、「つくる」が巡礼を始めた現在時点で、被害者である(と主張した)「シロ」はすでに殺されてしまい、真実は永遠に明か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ところが、「つくる」が巡礼をしながら出会った３人の友達はみんな、「クロ」が「シロ」の肩をもって、「つくる」の追放を強く主張していたので、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と、でもその時も今も、「つくる」がそのような人間ではないことを信じているといいながら、「つくる」の潔白を認めてくれる。

この場面が示唆するところは何であろうか。小説前半で歴史の真実を探せと、「つくる」を旅立たせた春樹が、途中で、罪のない男性(日本人)被害者として「つくる」を位置させ、加害者だったかもしれない彼のことを、みんなが無実、無罪だとみとめるようにしている。さらに、「シロ」と最も親しかった「クロ」さえ、「シロ」がなぜそのような「妄想」と「操作」をしたのか理解できないといい、「アカ」は「シロ」が「つくる」に嫉妬したためであると推測し、その大事な歴史の記憶を、一人の女性の嫉妬と恨みに帰結させている。でも真実のキーをもっている「シロ」を除いて、外部者たちが「レイプの歴史＝レイプの真実＝シロの嘘」として断定し、真の被害者だったかもしれない当事者の証言なしで、歪曲された真実―つまり「加害者＝シロ」対「被害者＝つくる」―が勝利を収めていることは注目する必要がある。これで真実探しゲームは終わり、加害者の「シロ」は断罪され、犯人も捕まえないまま殺されてテキストからアウトさせられてしまい、春樹作品の中で、最も憎まれる「女性嫌悪」対象の一人になっている。

「暗号性」に戻り、色彩の意味を考えてみよう。その中でも、女性主人公の「シロ」と「クロ」の名前は、白と黒を意味し、そこにレイプと嘘というキーワードを作品のテーマである記憶と歴史問題と結びつけて考えてみると、二人は白いチョゴリと黒いチマ(スカート)の朝鮮人慰安婦のアレゴリーであることが分かる。日韓の歴史問題としてなかなか解決の見通しが立たない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春樹は「サブアルトン」の立場から、その声々を代弁しようと

したのであろうか。植民地時代の日本と日本軍(「つくる」)によって犠牲になったアジア諸国の従軍慰安婦(シロ)の痛みを告発しようとしたのであろうか。

最初は、加害者である戦時日本軍(「つくる」)の蛮行(レイプ)を告発し、これらの戦時暴力にさらされた慰安婦(シロ)の不幸な人生(孤独、歪んだ生)と死(絞殺)について語ろうとしたのであると解釈される。しかし、結論としては、誰が加害者なのか被害者なのか、真実は永遠に埋もれてしまい、レイプの被害者である「シロ」が嘘で「つくる」を苦境に陥れ、さらにその原因を嫉妬というごく個人的な感情へと帰結させてしまっていることから、社会的発言に積極的であった春樹の消極的な姿勢と両面性、そして日本社会で、それ以上の批判を甘受しがたいと思う、作家の危機感さえ感じられる。

＜参考文献＞

安藤礼二(2013.6)「歴史と記憶、現実と予言　村上春樹「『色彩を持たな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について」『新潮』110(6)

明里千章(2012)「読む　村上春樹『1Q84』における記憶」、『日本文学』61(11)

小森陽一(2006)「村上春樹論『海辺のカフカ』を精読する」平凡社新書

小山鉄郎(2015.7)「村上春樹の「歴史認識」」『文学界』69(7)

柴田勝二(2013.6)「せめぎあう「記憶」と「歴史」—「『色彩を持たな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について」『英語で読む村上春樹』、NHKラジオテキスト

中央日報(2017.7.18)「村上春樹氏「セウォル号のような集団的な心の傷、小説で書けなくても挑戦はしないといけない」

同志社大学 Doshisha University

2023년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입 시 요 강**

대 학 원

		스포츠건강과학 전공
신학 전공	상학 전공	심리학 전공
문학 전공	종합정책과학 전공	글로벌·스터디즈 전공
사회학 전공	문화정보학 전공	뇌과학 전공
법학 전공	이공학 전공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경제학 전공	생명의과학 전공	경영 전공(경영전문대학원)

Why Doshisha?

1875년 창립
최고 명문 사립대학

전통과 혁신의 도시 **교토에서 배운다**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

대학국제화 네트워크사업
46개국 214개 대학 협정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 **높은 취업률**

외국인 유학생의 신분

정규학생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을 수료할 목적을 가진 자

특별학생
대학원에서 특정 과목의 이수, 청강 또는 연구 지도를 받는자

영어로 학위취득이 가능한 코스 (대학원)

국제과학기술과정 [ISTC]
글로벌 MBA/글로벌 경영연구 전공 [GBMS]
글로벌·스터디즈 전공

도시샤대학 국제센터 유학생과
TEL : +81-75-251-3257 FAX : +81-75-251-3123
E-mail : ji-intad@mail.doshisha.ac.jp Website : https://intad.doshisha.ac.jp/kr/

도시샤대학 국제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shishaU.IC

도시샤대학 서울사무소 서울YMCA408호 TEL:02-732-7704 FAX:02-732-7708 E-mail:ji-int28@mail.doshisha.ac.jp

2023년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입시

지원자격

전공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사과정(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석박사 통합과정의 석사과정)
일본 외 국적을 소지하고, 일본 외 국가에서 16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예정인 자 .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박사과정)
일본 외 국적 소지자로, 일본 외 국가에서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본교 입학 시까지 취득예정인 자.

입학시기(정규학생)

4월·9월	이공학 전공(박사과정), 생명의과학 전공, 글로벌·스터디즈 전공(박사과정), 국제과학기술과정 [ISTC]
9월	글로벌 MBA / 글로벌 경영연구 전공 [GBMS]
4월	상기 이외의 대학원

입학전형료

대학원 독자시험의 유무에 따라 전형료가 달라집니다.

서류전형 + 대학원 독자시험	서류전형
15,000엔	10,000엔

전형방법·전형일·전형장소

가을학기와 봄학기에 시행하며, 일정은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시험요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s://intad.doshisha.ac.jp/japanese_program/guide_entrance_exam_g.html】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각 학과의 지도교수는 아래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endb.doshisha.ac.jp/search/index.html】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생생활 지원정보

장학금

도시샤대학 사비 외국인 유학생 성적우수자 수업료 감면 장학금
2023년도 입학생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예정이므로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도시샤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신진연구자 육성 장학금

※문부과학성 장학금(학비 전액 면제 및 월 생활비 지급),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금, 각종 장학 재단의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에는 도일 전 입학허가 를 받은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기숙사

◆본교가 확보한 기숙사(학교 소유 및 임대)를 제공합니다.
◆학교 외의 주거 알선기관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연대 보증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은 임대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대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샤대학은 보증인 대행 회사인 「(주)글로벌 트러스트 네트웍스(GTN)」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본학의 학생이라면 할인된 요금으로 보증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교토에서의 평균 생활비는 12만엔(1개월) 정도입니다.

튜터 제도

대학원에 재적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능력 및 영어능력, 전문분야에 관한 학습, 연구성과의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납부금 <참고 : 2022년도>

2023년도 입학생의 학비·제비용은 결정되면 본교 홈페이지에 공표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단위: 엔)

		과정	1학년 합계	입학 수속 시 필요 납부액	학비(연간) 입학금	수업료	교육충실비	실험실습료	기타 학회비
신학 전공		석사 과정	910,000	555,000	200,000	598,000	109,000	–	3,000
		박사 과정	927,000	563,500		603,000	121,000	–	
문학전공	영문학·영어학 전공	석사 과정	912,000	556,000		598,000	109,000	–	5,000
		박사 과정	929,000	564,500		603,000	121,000	–	
	철학전공, 문화사학 전공 미학예술학 전공	석사 과정	911,000	555,500		598,000	109,000	–	4,000
		박사 과정	928,000	564,000		603,000	121,000	–	
	국문학전공	석사 과정	913,000	556,500		598,000	109,000	–	6,000
		박사 과정	930,000	565,000		603,000	121,000	–	
사회학 전공		석사 과정	912,000	556,000		598,000	109,000	–	5,000
		박사 과정	929,000	564,500		603,000	121,000	–	
법학전공		석사 과정	915,000	557,500		598,000	109,000	–	8,000
		박사 과정	932,000	566,000		603,000	121,000	–	
경제학 전공		석사 과정	911,500	555,750		598,000	109,000	–	4,500
		박사 과정	928,500	564,250		603,000	121,000	–	
상학전공		석사 과정	912,000	556,000		598,000	109,000	–	5,000
		박사 과정	929,000	564,500		603,000	121,000	–	
종합정책과학 전공		석사 과정	914,000	557,000		598,000	109,000	–	7,000
		박사 과정	931,000	565,500		603,000	121,000	–	
문화정보학 전공		석사 과정	997,000	598,500		638,000	117,000	40,000	2,000
		박사 과정	1,015,000	607,500		642,000	131,000	40,000	
이공학전공, 생명의과학 전공		석사 과정	1,276,000	738,000		815,000	147,000	112,000	2,000
		박사 과정	1,294,000	747,000		820,000	160,000	112,000	
스포츠건강과학 전공		석사 과정	1,028,000	614,000		638,000	117,000	70,000	3,000
		박사 과정	1,046,000	623,000		642,000	131,000	70,000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1,044,000	622,000		668,000	123,000	50,000	3,000
		박사 과정	1,060,000	630,000		671,000	136,000	50,000	
글로벌·스터디즈 전공		석사 과정	912,000	556,000		598,000	109,000	–	5,000
		박사 과정	929,000	564,500		603,000	121,000	–	
뇌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1,274,000	737,000		815,000	147,000	112,000	–

■전문대학원 과정

(단위: 엔)

	입학 수속 시 필요 납부액	입학금	학점당 수업료 (1학점당)	교육충실비
법학전문대학원	277,000	200,000	36,000	154,000
경영전문대학원	310,000		49,000	220,000

■특별학생

(단위: 엔)

	1학년 합계	입학 수속 시 필요 납부액	입학금	연수료 (연간)	연수료 (20학점 초과시 1학점당)
신학 전공,문학 전공,사회학 전공,법학 전공,경제학 전공,상학 전공,종합정책과학 전공,글로벌·스터디즈 전공	530,000	290,000	50,000	480,000	24,000
문화정보학 전공,스포츠건강과학 전공	550,000	300,000		500,000	25,000
이공학 전공,생명의과학 ,뇌과학전공	690,000	370,000		640,000	32,000
심리학 전공	570,000	310,000		520,000	26,000

자세한 사항은 URL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intad.doshisha.ac.jp/kr/